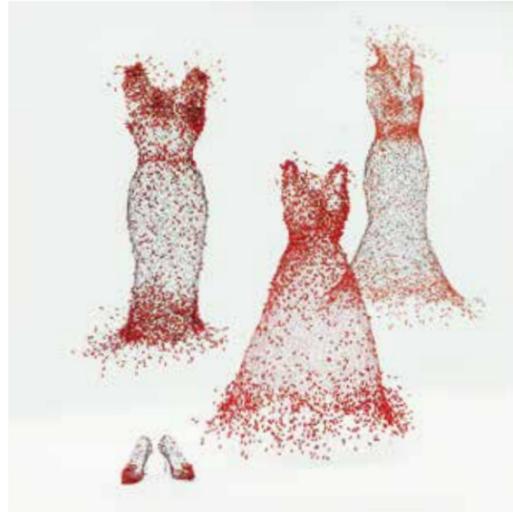


cover artist

GEUM Keysook

금기숙



“몸에 입혀져야 비로소 패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저는 패션의 지평을 좀 더 넓게 봅니다. 입지 않아도 패션의 아름다움과 창의성을 오감으로 즐길 수 있다면 그건 패션이죠.” 금기숙의 작품은 패션아트, 부드러운 조각, 와이어 조각 등 새로운 명칭을 낳으며 패션과 예술의 경계를 허물어 왔다. 버려진 철사를 섬세한 실처럼 엮고 그 안에 반짝이는 비즈를 심으며, 입지 않아도 패션이 될 수 있다는 사실과 패션도 예술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증명해 온 셈이다.

그녀가 만드는 옷은 유람선을 타고 바다를 가르며 세계인과 만나고 있다. 2009년부터 20년간 세계적인 크루즈 선사인 로열 캐리비언이 인도하는 ‘일루어 오브 더 시즈 Allure of the Seas’의 선상에 35점의 작품을 전시하기로 한 덕분이다. 우리나라 전통 복식이 지닌 부드러운 아름다움과 자연과 인간의 조화라는 동양적 메시지는 그녀의 작품을 통해 바다를 가르며 세계인의 가슴에 파고를 일으키고 있다.



아주



아주그를 매거진 「아주좋은날」을 모바일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해 다운받아 보세요.



9 772508 522001
ISSN 2508-5220

71

아주 좋은 날

AJU QUARTERLY MAGAZINE
2017 NEW YEAR • VOLUME 47





철사와 비즈로 구축한 조화롭고 아름다운 세계

금기숙의 작품은 버려진 옷에 대한 책임감의 실천이자 “패션도 예술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1990년대 초반, 하나의 옷이 세상에 나온 후 다시 사라질 때까지 수백, 수천 년이 걸린다는 사실에 책임감을 느낀 금기숙은 버려진 철사와 구슬을 재료로 옷을 짓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끝에서 탄생하는 오브제는 한복 특유의 섬세한 곡선과 비즈 장식의 반짝임으로 사람들을 황홀경에 빠뜨렸고, 패션이 생존을 위한 소비 행위를 넘어 예술의 범주에 속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금기숙은 철사를 하나하나 꼬며, 밀도를 높이고 형상을 이루는 과정을 통해 사람과 사람이 얽히며 만드는 인연과 어울림, 조화의 정신을 담는다.



- 좌측**
- 오래된 이야기, 2013, Wire, Beads, 140x10x65cm
- 우측**
- Gold Vest, 2011, wire, beads, 40x40x70cm
 - Emerald Vest I, 2011, wire, beads, 40x40x65cm

- 앞표지**
- Dream in Khaki, 2014, Wire, Beads, 165x25x135cm
- 뒷표지**
- Red Drop Dress, 2010, Wire, Beads, 90x90x140cm
 - Red in Dignity, 2011, Wire, Beads, 80x80x140cm
 - Deep Red Dress & Shoes, 2011, Wire, Beads, 45x50x130cm

「아주좋은날」은 다 함께 생각하고 즐기는 공간으로 갤러리와 같은 매거진을 추구합니다. 예술과 문화, 인문학적 바탕을 통해 우리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품을 넓혀 가고자 합니다.

멈추지 않는 변화의 스피릿, 혁신을 창조하다

“작은 변화들이 일어날 때 진정한 삶을 살게 된다.” 러시아의 문학가 톨스토이가 한 말입니다. 2017년 새해를 작은 변화를 만들어 내는 진정한 삶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묵은 마음의 찌꺼기를 비워 내고 단단한 다짐으로 채워 새해를 맞이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결심이나 사소한 말 한마디에서 시작되는 것이지요. 정유년의 붉은 닭이 화를 치며 힘차게 다짐을 하듯, 「아주좋은날」 신년호는 우리의 일상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정신spirit에 대해 이야기하며 변화를 만들어 가려합니다. 굳건한 정신은 우리의 일상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출발점이 되어 주니까요. 신년호에 담긴 생각이 여러분의 새해에 환한 변화를 가져다주기를 바라며, 올해에도 여러분의 일상과 동행하겠습니다. 함께하므로 매일, 매일이 아주 좋은 날입니다.



금가속, Dream in Blue, 2014.
Wire, Beads, 165x25x135cm

Contents

| Section 1. | Art + Life |
|---------------------|-------------------------------|
| 02 gallery | 멈추지 않는 변화의 스피릿, 혁신을 창조하다 |
| 08 opinion | 존중이 만드는 협력의 기마술 |
| 10 insight | 도전과 혁신의 정신,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다 |
| 14 people | 평생 노력하는 조화로운 한 사람, 뮤지컬 배우 전수경 |
| 18 curator's choice | 걸음을 멈추지 않는 한 모험은 계속된다 |

| Section 2. | Now + Moment |
|-------------------------|--|
| 21 culture and the city | 평시천등축제로부터 출발하는 타이완 핑시의 밤과 꿈 |
| 28 motor story | 자동차의 역사를 만들어 온 최초의 기록 |
| 32 favorite things | 자유와 시간을 넘어선 행복, 제주의 자연을 닮은 예술가 이왈종 화백의 餘暇食美 |
| 36 scene of object | 집으로 돌아가는 마법이 깃든 〈오즈의 마법사〉도로시 구두 |

| Section 3. | Aju + Style |
|------------------|--------------------------|
| 39 aju spirit | 묵묵히 빛나는 선행, 아주 푸른 희망의 길 |
| 44 aju sharing | 외진 골목 시린 마음들 따뜻한 온기로 채우다 |
| 48 aju news | 아주 소식을 전합니다 |
| 52 reader's view | 독자 후기와 아주의 선물 |

EL ATENEO

전통을 지키면서 변화하는 법

지구 반대편, 부에노스아이레스에 가면 책의 신전이라 불리는 서점을 만날 수 있다. 1919년 오페라하우스로 문을 연 엘 아테네오가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채 2000년 서점으로 변신한 덕분이다. 관중의 환호가 가득하던 객석에는 수만 권의 책이 채워졌고, 빨간 무대막 뒤 오페라가 펼쳐지던 무대 위에는 카페가 문을 열었다. 비싼 티켓 값을 치러야만 앉을 수 있었던 박스 석도, 천장을 수놓은 화려한 그림과 장식도 누구나 쉽게 접하고 향유할 수 있는 서점의 일부가 되었다.

엘 아테네오의 시작점에는 아르헨티나 문화·예술의 중심지라는 이름에 걸맞은 크고 화려한 극장을 지어 보자는 계획이 있었다. 그에 따라 당대 유명 건축가, 조각가, 화가가 참여해 웅장하고 아름다운 건물을 완성했고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람들이 향유하는 문화도 변했다. 변화의 필요성을 실감한 엘 아테네오는 명성이 담긴 외관은 그대로 보존하되, 시대에 맞는 문화를 더 많은 시민과 나눌 수 있도록 공간의 쓰임을 바꾸는 지혜를 발휘했다. 그 결과 아르헨티나 최초로 라디오 방송이 울려 퍼진 곳도, 유성영화 상영이 시작된 곳도 모두 엘 아테네오가 되었다. 전통을 지키면서 시민들의 취향에 발맞추고자 한 시도가 불려온 변화들이었다.

탄생 100주년을 넘긴 지금, 엘 아테네오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사람들을 넘어 세계인들에게까지 사랑받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한 해 70만 권이 넘는 책이 팔리는 서점, 100만 명 이상의 사람이 방문하는 관광 명소, 영국 「가디언」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10대 도서관 중 하나로 그 위상을 높이며 세계인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있다.



COMMON GROUND

개방적 사고를 넘어서는 공간의 멋

1960년대 컨테이너 박스는 선박 운송비를 절감시키며 로지스틱스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했다. 2000년대에는 그런 컨테이너 박스의 실용성에 디자인을 입혀 높은 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누구나 새로운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도시 공간의 변화를 창조해냈다. 알록달록 색을 입혀 쌓아 놓았을 뿐인데, 색다른 콘셉트의 가게들이 입주하고 감각 있는 사람들이 모여 신선했던 문화 콘텐츠를 자유롭게 확대, 재생산하고 있으니 말이다.

2015년 4월 건대 앞에 국내 최초이자 세계 최대 컨테이너 복합 쇼핑몰인 커먼그라운드 들어섰다. 차곡차곡 쌓은 파란 컨테이너 박스 200개에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 대신 신진 디자이너들의 개인 브랜드 스툽이 입주했고, 새로운 감각을 원하는 손님들이 몰려들었다. 광장은 젊은 사장님을 꿈꾸는 청년들의 푸드트럭으로 가득 찼고, 광장을 찾은 고객들의 취향에 맞추어 전시, 퍼포먼스, 플라마켓 등 다양한 문화 행사가 펼쳐졌다. 이 공간이 원래 택시 차고지로 활용되던 유휴 공간이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컨테이너 박스가 가져온 변화의 크기를 실감할 수 있다.

커먼그라운드를 설계한 알반테이너는 '컨테이너 건축과 공간 브랜딩을 통해 도시를 즐겁게 혁신한다'는 목표를 가진 기업이다. 알반테이너는 컨테이너 박스에 상상력을 담아 새로운 공간을 창조하며, 도시의 풍경을 바꿔나간다. 아티스트들의 작업실이자 전시 공간인 강남의 플래툰콘서트홀레, 국립극장 방문객이 쉬어갈 수 있도록 마련한 극장 앞 휴게 공간도 모두 이들의 작품이다. 이미 성격이 규정된 공간에 사람이 입주하는 개념이 아닌, 입주한 사람이 공간의 성격을 규정하도록 관점을 바꾼 시도는 색다른 공간을 창조하며 회색 도시에 색깔과 활기를 더하고 있다.

NAOSHIM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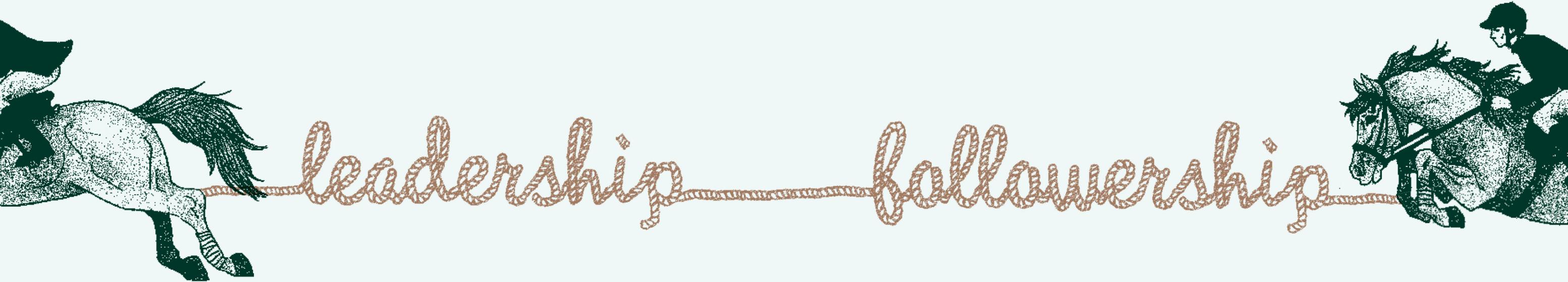
조화의 정신이 일으킨 예술의 섬

나오시마가 시작되는 미야노우라 항에는 언제나 파란 바다와 쿠사마 야오이의 '빨간호박', 그리고 그를 보고 행복해지는 사람들이 어울려 만드는 따뜻한 풍경이 있다. 이 장면은 나오시마의 첫인상인 동시에 섬 전체를 설명하는 메시지다. 자연의 빛깔과 예술의 영감, 그를 보는 사람들의 즐거움으로 가득한 섬. 3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어둠이 가득했던 나오시마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

1917년부터 금속 제련소가 운영되었던 나오시마는 공장에서 배출된 가스와 쓰레기로 뒤덮인 죽은 섬이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베네세 그룹은 1980년대 후반, 지방 정부와 합심해 '나오시마 도시 재생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자연과 예술이 공생하는 섬'이라는 취지에 공감한 아티스트들이 모여 흥미로운 작업을 펼치기 시작했고 섬의 모습은 점차 변화했다. 세계적 건축가 안도 다다오는 나오시마에 세 개의 건축물을 지었다. 미술관과 호텔이 결합인 베네세하우스, 자연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땅속에 설계한 지추미술관, 절제의 미가 흐르는 이우환미술관은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나오시마로 초대한다. 또한 주민들이 육지로 떠나 빈집이 된 공간에 아티스트가 입주해 작은 갤러리로 재탄생시킨다는 아이디어의 이에(빈집) 프로젝트도 나오시마를 대표하는 아트 프로젝트 중 하나다.

나오시마는 예술을 위한 예술을 선보이지 않는다. 지역의 자연 풍경과 주민들의 삶, 예술의 조화가 만드는 평화로운 장면을 선사한다. 예술이 뿌리내려 자라도록 하는 토양으로서의 지역과 공유될수록 커지는 예술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정신 덕분이다. 이런 정신에 아티스트들의 감각이 더해지며, 나오시마의 기적은 계속되고 있다.

기수의 리더십과 말의 팔로어십 존중이 만드는 협력의 기마술



서구 사회에서는 기마술을 왕자의 교육으로 간주해 왔다. 기마술을 채찍이나 완력으로 말을 통제하는 기술이 아닌, 기수와 말이 하나 되어 펼치는 상호 협력의 기술로 보았기 때문이다. 기수의 리더십과 말의 팔로어십, 이들이 만드는 협력의 정신은 21세기인 지금까지도 여전히 유효하다. 글 김상근

왕자의 교육, 기마술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말이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 역사상 가장 뛰어난 기수였다는 장자크 부아송(Jean-Jacques Boisson)의 말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 승마는 단순한 말타기가 아니다. 인간과 말 사이의 조화로운 이해와 관계를 기반으로 한 기예다. 말이 인간에게 굴종하는 것이 아닌, 서로 진실하면서도 성실한 관계를 형성하며 전투에서 승리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이루어 가는 것. 그래서 서구 사회에서는 기마술을 ‘왕자의 교육(Education of Prince)’으로 간주해 왔다. 승마 기술의 연마를 장차 군주가 될 왕자를 위한 중요한 교육의 일환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기마술에서 기수(騎手)는 통치자, 군주 혹은 리더를 뜻한다. 동시에 말(馬)은 백성 혹은 팔로어를 상징한다. 그리스의 역사가 크세노폰(Xenophon)은 리더와 팔로어 간의 관계를 주목했던 사상가다. 소크라테스의 직계 제자

였지만 그의 곁을 떠나 페르시아 내전에 참전했던 독특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1만 명의 그리스 용병대를 이끈 전설적인 장군으로, 생사를 넘나드는 전쟁터에서 리더와 팔로어의 관계에 대한 실전 경험을 쌓았다. 그래서 그의 글에는 현장 경험에서 우러난 생생한 통찰력이 넘쳐 난다. 『기마술에 대하여』는 바로 그 크세노폰이 남긴 짧지만 흥미로운 책이다. 현존하는 최초의 승마술 책인 동시에 리더인 기수가 팔로어인 말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담겨 있다.

기수를 통해 보는 바람직한 리더십

『기마술에 대하여』에서 크세노폰은 좋은 말을 고르는 법부터 설명한다. 당연히 다리가 튼튼하고, 성질이 온순하며 고된 행군을 견딜 수 있는 인내력과 끈기를 가진 말을 골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인상 깊은 점은 “능력이 부족해서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이 부족할 뿐”이라는 평이다. 그는 비

록 신체적으로 부족함이 있어도 ‘가르치고, 훈련하고, 길들임으로써’ 좋은 말로 성장시킬 수 있다고 단언한다. 태어나면서부터 잘 달리는 말은 찾기 힘들다. 기수를 리더로, 말을 팔로어로 바꾸어 생각해 보면 리더의 덕목을 발견할 수 있다. 훌륭한 리더는 팔로어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탓하지 않고 가능성에 집중한 채 천천히 가르치고 함께 훈련하는 이다.

또한 기수는 절대로 화가 난 상태에서 말을 타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크세노폰의 표현을 직접 빌리자면 “화는 무분별한 것이며, 후회할 짓을 사람이 종종 저지르게 만들기 때문”이다. 만약 말이 어떤 물건을 두려워하면, 기수는 말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직접 만져서 더 이상 겁을 먹지 않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절대로 말을 때리거나 완력을 써서 통제하면 안 된다. 자신의 신체에 고통이 가해진다는 것을 아는 순간, 말은 더 깊은 공포심에 빠져들면서 돌발적인 행동을 하기 때문이다. 리더가 팔로어를 대할 때는 항상 이성적이어야

하고 행동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또한 강압적인 방법은 아무런 효력도 발휘할 수 없다.

말의 팔로어십과 협력의 기마술

말의 행동을 통해서는 팔로어십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기수는 말에 올라탈 때 신중을 기해야 한다. 말 등에 올라타면서 절대로 “의자에 앉는 것처럼 앉지 말고, 마치 양쪽 다리를 벌리고 똑바로 서 있는 것처럼 앉아야” 한다. 기수가 의자에 앉는 것처럼 걸터앉으면 말은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할 뿐 아니라, 기수와 말은 혼연일체가 되어 적과 싸워야 한다. 그런데 말이 기수를 짐짝으로 간주하거나,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용감하게 적진으로 뛰어들지 않을 것이다. 리더와 팔로어의 관계에서도 그렇다. 리더가 팔로어를 존중하지 않고 균림할 때, 팔로어는 존경하지 않는 리더의 권력을 견제하며 전진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다. 하나가 되어 전진하기 위해

서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기반으로 한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기수가 말을 타는 이유는 전쟁에서 적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다. 말을 타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모든 리더는 기수다. 팔로어인 말을 몰고 전쟁터로 달려가는 기수다. 기수와 말이 하나가 될 때, 전투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다. 기마술은 채찍이나 완력으로 말을 통제하는 기술이 아니라, 기수와 말이 하나가 되어 펼치는 상호 협력의 기술이다. 리더와 팔로어의 이상적인 관계도 기마술과 전혀 다르지 않다. 리더와 팔로어는 우리의 생활 곳곳, 어디에서나 성립하는 관계다.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며 건강한 관계를 맺어 나가는 힘, 협력과 존중을 통해 하나의 목표를 만들고 달성하는 지혜가 필요할 땐 기수의 리더십과 말의 팔로어십을 떠올려 보자.

글쓴이 김상근은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교수다. 주요 저서로 『군주의 거울 영웅전』, 『인문학으로 창조하라』 등이 있으며 인문학의 대중화를 위한 강연 및 저술 활동에 힘쓰고 있다.

도전과 혁신의 정신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다



날마다 새로운 인생에 도전한 최초의 여의사
박에스더

1890년 이화학당을 졸업한 박에스더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전문 병원 보구여관에서 간호보조와 통역 일을 하다가 의사의 꿈을 품게 되었다. 1895년 미국 유학을 떠나 1900년 6월 볼티모어 여자의대를 졸업, 한국 최초의 여성 의사이자 의학 박사가 됐다. 귀국 후 10년간 의료 봉사와 간호 인력 양성에 전념하던 박에스더는 34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과로와 폐결핵이 원인이었다. 박에스더의 동료였던 선교사 로제타 홀은 그녀를 추모하며, 우리나라 최초의 결핵 요양원을 세우고 크리스마스 실을 발행했다. 그녀의 봉사 정신은 현재까지 이어지며 세상에 온기를 전하고 있다.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늘 새롭게 도전하는 사람. 박에스더와 빌 바우어만은 끝없는 도전과 멈추지 않는 혁신의 정신으로 한 분야의 정상에 선 인물들이다. 이들은 자신의 전문성으로 낙후되어 있던 우리나라 의료 복지와 세계 스포츠 산업의 변화를 주도했다. 이들이 일군 변화는 오늘날 누구나 의료 서비스를 누리고 스포츠를 향유하며 건강한 미래를 가꿔 나갈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 글: 표정훈 일러스트: 권재준

출판평론가 표정훈은 서강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번역가, 저술가, 칼럼니스트로 활동해 왔다. 주요 저서로 『탐서주의자의 책』, 『나의 천년』 등이 있다.



나이키 제국을 세운 스포츠 산업계의 혁신가
빌 바우어만

오리건 대학 스포츠팀 흥경기장에는 스톱워치를 든 동상이 서 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육상 코치, 빌 바우어만의 동상이다. 열정적인 육상 코치였던 그는 1964년 나이키의 전신인 블루리본 스포츠를 창업해 러닝화에 혁신을 일으켰고 러닝의 대중화에도 크게 기여했다. 현재 나이키 본사에는 바우어만을 기리는 기념관이 있으며, 주소도 '원 바우어만 드라이브(One Bowerman Drive)'다. 브랜드의 역사와 방향성이 그의 철학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는 증거다. 바우어만은 군인에서 육상 코치로, 육상 코치에서 스포츠 산업계의 혁신가로,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달려온 진정한 러너였다.

god-directed



목표 지향적 자세로 이룬 최초 여의사의 꿈

이화학당을 졸업한 박에스더는 14세 때인 1890년부터 여성 진료 기관인 보구여관에서 통역과 간호보조 일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입술이 갈라진 구순구개열(언청이) 환자 아이가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보구여관을 찾았다. 수술을 보조한 박에스더는 봉대를 풀고 완치된 것을 확인한 아이의 부모가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 의사의 꿈을 품게 되었다. 결심한 그날부터 박에스더의 목표는 한결같았다. 그리고 실제로 의술을 배워 아픈 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았다.

1895년 2월 박에스더는 선교사 로제타 홀의 도움으로 뉴욕 리버티 공립학교에서 유학 생활을 시작했다. 같은 해 9월부터는 뉴욕 아동 병원에서 일하며 생활비를 버는 틈틈이 대학 입학 준비했다. 1896년 10월 기나긴 노력 끝에 박에스더는 볼티모어 여자의대에 입학했다.

그녀가 힘들게 고학(苦學)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 홀이 편지로 귀국을 권유한 적도 있지만, 박에스더는 이런 내용의 답장을 보냈다.

“지금 여기에서 포기하면 다른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고, 최선을 다한 후에도 도저히 배울 수 없다면 그때 포기하겠습니다. 그 전에는 절대 이 길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1900년 6월 볼티모어 여자의대를 졸업한 박에스더는 한국 최초의 여성 의사이자 여성 의학 박사가 되었다. 여성 의사라는 전례가 없었던 시대, 그녀가 어떤 난관에도 좌절하지 않고 목표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흔들리지 않는 강한 신념과 확고한 목표 의식 덕분이었다.



multiplayer

다양한 영역을 아우른 멀티플레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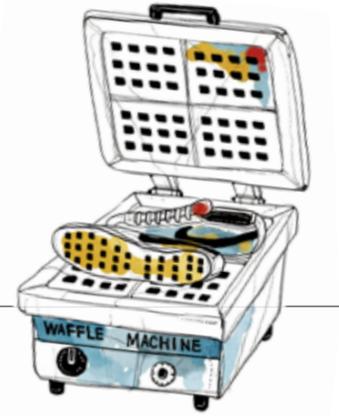
귀국한 박에스더는 로제타 홀과 함께 의료 활동을 펼쳤다. 홀의 보조에서, 함께 의료 활동을 펼치는 동료로 거듭난 셈이다. 병에 걸려도 아픈 부위를 의사에게 보이는 것을 꺼리던 시대, 최초의 여의사 박에스더는 많은 여성 환자의 희망이 되었다. 박에스더는 보구여관은 물론 평양의 여성 치료소 광혜여원에서 진료했고, 황해도와 평안도를 순회하며 진료 봉사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박에스더가 진료 활동 못지않게 중시한 활동은 교육이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국립병원 광혜원에 여성 전용 건물을 신축해 한국 최초의 간호원 양성소를 개설했다. 1906년 1월에는 한국 최초의 간호원 자격 수여식인 '가관식'을 열고, 간호원 양성소 1회 졸업생 이그레이스와 김마르타를 배출했다. 박에스더는 이 공로를 인정받아 1908년 4월

28일 고종 황제로부터 노고를 치하받기도 했다.

또한 박에스더는 맹아·농아 교육을 위한 특수학교인 평양맹아학교에서도 아이들을 직접 가르쳤다. 교육에 대한 열의는 점점 커져 성서와 기독교 교육을 하는 여자성경학원에도 강의를 나갔고 나아가 근대적인 위생 관념을 보급, 확산시키기 위한 계몽 활동도 펼쳤다. 진료 봉사, 간호의료 교육, 특수 교육, 기독교 교육, 여기에 보건위생 계몽 활동까지. 도전의 영역을 하나에 한정시키지 않고 인접 분야로까지 넓혀 나간 박에스더는 자신의 전문성으로 세상에 이로움을 전하고자 한 따뜻한 멀티플레이어였다.

A spirit of innovation



혁신 정신으로 세운 나이키 제국

1944년 말 동부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의 국경인 브렌네르 고개 근처에서 미군과 독일군의 협상이 이뤄졌다. 이탈리아 전역에서 독일군이 항복하기 얼마 전이었다. 협상 결과 독일군은 더 이상 전투를 하지 않고 물러났다. 불필요한 희생을 막기 위해 협상을 주도한 사람은 ROTC 출신 미 육군 소령 빌 바우어만이었다. 바우어만은 전역 후 1948년 6월부터 오리건 대학 육상 코치로 일했다. 그는 전미대학육상협회가 주최한 대회에서 24명의 개인 종목 우승자와 4개의 단체 종목 우승팀을, 전미육상대회에서는 우승 선수 64명을 길러냈다. 1968년 멕시코시 티 올림픽에 대비해 그가 개발한 고지대 적응 훈련 프로그램 또한 성공적이며, 1972년 뮌헨 올림픽 때에도 미국 육상팀 수석 코치로 활동했다. 이처럼 바우어만은 미국 육상 역사상 가장 위대한 코치로 평가

받았다. 하지만 그의 전설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다. 오리건 대학 제자였던 필 나이트와 함께 스포츠 산업계의 제국, 나이키를 일구며 새로운 전설을 창조했다. 이들은 “쿠션 좋고 측면 안정성이 뛰어나며, 유연하고 가벼운 스포츠화를 만들자!”는 목표를 세우고, 1964년 나이키의 전신인 블루리본 스포츠를 창립했다.

1971년 바우어만은 아내가 와플 기계에 반죽을 부어 넣는 것을 보고, 합성고무로 가벼운 신발 밑창을 만드는 아이디어를 고안했다. 스파이크의 쇠로 된 밑창을 가벼운 고무로 바꾼 결과 러닝화에 대혁신이 일어났다. 그의 멈추지 않는 혁신 정신은 나이키의 정신이자 역사가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system builder

새로운 체계를 만드는 스마트한 시스템 빌더

1962년 뉴질랜드 전지 훈련 중이던 코치 빌 바우어만은 조깅을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생활 피트니스 과정에 도입했다. 운동 대상에 나이가 많은 사람까지 포함시키는 것으로 조깅 대중화의 출발을 알렸다.

귀국 후 바우어만은 동료 코치 아서 리더드와 함께 조깅 클럽을 조직했으며 조깅에 관한 논문과 책을 쓰기 시작했다. 그가 집필, 배포한 세 페이지 분량의 조깅 매뉴얼은 큰 주목을 받았다. 나아가 1966년 심장병 전문의 W. E. 해리스와 함께 출간한 단행본 『조깅』은 100만 부 이상 팔리면서 조깅 열풍에 불을 붙였다. 동시에 오리건 주 유진 시에 폭넓은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깅 프로그램을 개설했는데 이것이 이후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며 피트니스 프로그램의 모델이 되었다.

또한 바우어만은 1977년 필 나이트, 제프 홀리스터 등과 함께 애

슬레틱스 웨스트(Athletics West)라는 러닝 클럽을 결성해 운동화 사업을 통해 번 수익으로 러닝 클럽 선수들을 후원·육성했다. 그러자 선수들은 좋은 성과를 거두며, 주춤하던 미국 육상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 자립과 성장에 고충을 겪던 아마추어 선수들에게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해 주자 생겨난 변화였다.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잎이나 가지보다는 나무와 숲을 보는 넓은 시야가 필요하다. 넓은 시야로 육상계를 통찰한 바우어만은 새로운 체계를 세워 러닝을 대중화하고 선수들의 성장 기반을 마련한 스마트한 시스템 빌더였다.

평생 노력하는 조화로운 한 사람

뮤지컬 배우 전수경



뮤지컬 무대와 스크린, 브라운관을 중형무진 오가며 배역에 따라 자유롭게 변신한다. 자신이 흥미를 느끼며 온전히 즐길 수 있는 무대에 오른다. 그리고 그 감흥을 관객과 공유하기 위해 열정을 다한다. 대한민국 1세대 뮤지컬 배우 전수경. 그녀는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 '즐거움', '행복', '감사'란 단어를 자주 사용했다. 그리고 많이 웃었다. 배우 전수경과의 만남을 고대했다는 아주저축은행 진수일 매니저(변호사) 또한 그녀와 밝은 에너지를 공유하며 함께 웃었다.

글. 김희선 사진. 박정훈 장소. 협찬. 밀레니엄 서울힐튼

요즘 <오! 캐롤>을 통해 뮤지컬 팬들을 만나고 계시지요. 어떤 작품인지 직접 소개 부탁드립니다.

팝의 거장 닐 세다카(Neil Sedaka)의 히트 팝을 엮어 만든 주크박스 뮤지컬이에요. 1960년대 미국 파라다이스 리조트를 배경으로 주인공 6인의 사랑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저는 리조트 사장 '에스더' 역을 맡아 중년 커플의 사랑을 연기하고 있어요. <오! 캐롤>은 미국 라이선스 작품이지만 한국 정서에 맞춰 각색을 많이 했어요. 평단과 관객의 반응도 좋아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공연하고 있습니다.

주크박스 뮤지컬은 듣는 재미와 보는 재미가 특히 크더라고요. 배우들 역시 연습할 때나 공연할 때 느끼는 에너지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떤 영향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배우들끼리 늘 하는 말인데요, 장기 공연일수록 밝은 작품을 해야 배우들 건강에도 좋다고 해요. <오! 캐롤>이 딱 그런 작품입니다. 귀에 익숙한 팝 넘버들을 부르는 데다가 의상도 컬러풀하고, 극 자체가 흥겨워서 연기하는 저희도 정서적으로 건강해지는 느낌을 받아요. 더욱이 함께 공연하는 배우, 스태프들과 앙상블이 좋아서 큰 에너지를 얻어요.

<맘마미아!>도 아바(ABBA)의 히트곡을 만날 수 있는 뮤지컬이죠. 작년 공연까지 무려 13년이나 '타냐'를 연기하셨더군요. 오랫동안 함께한 캐릭터인 만큼 애착이 남다를 듯해요.

타냐는 제 인생에 영감을 많이 준 캐릭터예요. 그녀로 인해 성격도 달라졌어요. 사실 공연 초반에는 타냐를 연기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제 성격과 정반대여서 공감이 잘 되지 않아, 연기력으로 극복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평소 내 모습을 그대로 보여 주면 연기자로서 무슨 재미를 느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후부터는 나와 다른 캐릭터를 연기하는 매력에 푹 빠졌고, 일종의 카타르시스도 느껴요.

<오! 캐롤>, <맘마미아!> 두 작품 모두 장기 공연입니다. 매번 똑같은 대사와 노래, 연기를 하면서 혹시 힘들거나 무료함을 느낀 적은 없나요?

어쩌다 몸이 아플 때를 제외하고는 전혀 없어요. 그게 다 음악과 드라마, 감성의 힘인 것 같아요. 공연은 순간의 몰입이예요. 극에 집중해 연기하다 보면, 처음 사는 생을 따라가듯 스토리에 푹 빠져요. 매번 관객도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공연이 늘 새로워요.

뮤지컬 자체가 체력 소모가 큰 장르인 데다 장기 공연을 하시니 체력 관리가 필수일 것 같습니다. 평소 건강 관리하는 어떻게 하세요?

PT와 요가 등 최대한 할 수 있는 운동은 다 해요. 철저히 관리하지 않으면 금세 쇠약해지거든요. 제 또래 현역 배우는 모두 엄청난 관리를 하며 무대에 선다고 보시면 되어요. 생각해 보면, 무대에 서는 게 직업이어서 참 다행이에요. 뮤지컬 배우가 아니었다면 이 정도로 철저히 관리하며 살 수 없었을 거예요. 건강도 챙기고 그만큼 일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니 참 감사한 일이지요.

1988년 <대학가요제>에서 동상을 수상하셨는데 가수가 아닌 뮤지컬 배우의 길을 선택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당시만 해도 <대학가요제>는 대학의 낭만을 상징했어요. 그 낭만을 즐기려고 참가했을 뿐 가수가 될 목적은 아니었죠. 수상과 함께 앨범 발매 제의도 받았지만 제 오랜 꿈은 뮤지컬 배우였기에 응하지 않았어요. 당시엔 뮤지컬이 대중적인 장르가 아니어서 힘든 점도 있었어요. 하지만 한양대 연극영화과 30주년 특별 공연에 참여하면서 '나는 동료들과 함께하는 무대에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죠. 그때부터 뮤지컬 <캣츠> 오디션에 합격했고 그 작품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뮤지컬 배우의 길을 걷고 있어요.

대한민국 1세대 뮤지컬 배우로서 국내 뮤지컬계의 중추 역할을 하며 최고의 자리를 지키고 계신데 이렇게 통런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요?
저 스스로 흥미를 못 느끼거나 재미없는 작품은 하지 않아요. 일단 제가 즐겁게 연기할 수 있는 작품을 선택하고 관객들에게 제가 느낀 감동과 재미를 그대로 전달하고자 노력합니다. 대사와 연기, 작품의 정서를 오롯이 잘 전달하는 배우이길 바라구요. 모든 게 다 '노력'인 것 같아요. 꾸준한 노력!

살면서 누구에게나 위기와 절망의 순간이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배우님의 경우 갑상선암 수술 때가 아니었나 싶어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어요. 내 삶에서 뮤지컬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큰데, 자칫하면 무대에 서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가슴이

너무 아팠죠. 수술 후 다행히 무대에 복귀했지만 트라우마가 생겨 우는 날이 많았어요. 수술을 치르며 성대 근육이 많이 풀어진 탓에 노래할 때 소리가 갈라지고, 성량도 줄고, 음정 또한 자유자재로 내지 못했거든요. 그때 너무나 힘들고 슬펐어요.

그렇게 힘든 시기를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가족과 지인들이 보내 준 응원의 힘이 가장 컸어요. 최악의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에 감사하며 용기를 얻었죠. 힘든 상황을 겪고 나니까 지금 제 삶이 감사한 걸 알겠더라고요. 덕분에 배우로서의 자세도 달라졌어요. 수술 전에는 무대에 서는 게 당연한 일이었는데 지금은 저에게 기회를 주는 사람들, 함께 일하는 모든 이에게 고마움을 느껴요. 무엇보다 무대에 설 수 있는 자체가 꿈만 같습니다.



함께한다는 것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뮤지컬 무대뿐 아니라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넘나들며 폭넓은 활동을 하고 계세요. 과거엔 화장품 사업도 하셨고 가끔 강연도 하시던데, 혹시 새롭게 도전하고 싶은 분야가 있나요?

토크쇼를 좋아해서 기회가 닿는다면 토크쇼 진행을 해보고 싶어요. 뮤지컬 연출에도 관심이 많고요. 따뜻하고 재미있는 스토리의 작품을 한번 연출해 보고 싶어요.

뮤지컬 배우로서 관객에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길 바라세요?

연기 잘하는 배우이길 바라죠. 연기 잘하고, 재능 많고, 열심히 노력하고, 존경할 부분이 있고……. 하지만 무엇보다 '조화로운 인간'이 되고 싶어요. 사회성 없는 천재보다는 평생을 노력하더라도 조화로운 한 사람으로 기억되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처럼 일할 수 있고, 이 정도의 커리어와 가정의 평화가 있음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뮤지컬을 비롯한 영화와 드라마에 중년을 모티프로 한 작품이 많아졌으면, 나아가 다양한 콘셉트가 생기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도 좀 더 다양한 모습을 보여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주좋은날'의 2017년 테마는 '같이의 가치'입니다. 뮤지컬 공연을 하며 동료 배우, 스태프와 함께 작품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자주 느끼실 것 같은



같이한다는 건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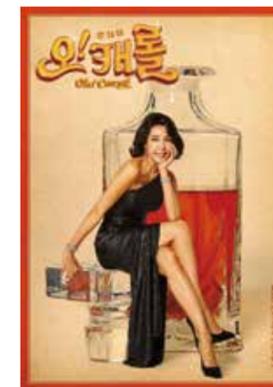
하지만 '같이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건 항상 많은 배움과 행복을 가져다줘요.

데요, 함께한다는 것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저는 '함께'한다는 것 자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요. 혼자보다 여럿이 함께 작업하는 게 더욱 즐거워요. 다른 이와 감정 교류나 공감 없이 사는 건,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다른 이들과 함께하다 보면 나와 안 맞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는 '세상에 진짜 나쁜 사람은 없고 부족한 사람만 있을 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죠. 같이한다는 건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같이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건 항상 많은 배움과 행복을 가져다줘요.

아주그룹 직원과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인생은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준비된 사람은 기회가 왔을 때 능력을 발휘해 좋은 결과를 내죠. 그러니 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또 내게 주어진 일이 하나여도 그 이상을 하고자 하는 마음, 즉 '주인 의식'을 가졌으면 해요. 저 역시 작은 배역이라도 '작품이 잘되어야 나도 빛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작품에 임하거든요. 여러분도 어떤 일을 하든 숲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신다면 좋겠어요. 주인 의식을 가지고 맡은 바 최선을 다하면 결국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뮤지컬 <오! 캐틀> 포스터.
공연은 2017년 2월 5일까지 서울 광림아트센터에서 만나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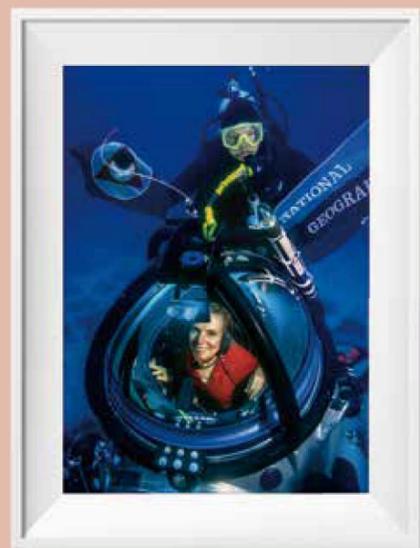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를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들어 볼 수 있는 기회를 아주인에게 드립니다. 인터뷰어가 되길 원하는 분은 '아주좋은날' 편집팀으로 연락 바랍니다. 커뮤니케이션팀 ajupr@aju.co.kr

걸음을 멈추지 않는 한 모험은 계속된다

내셔널 지오그래픽과 드림웍스는 반복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세계를 향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들이 모험을 통해 발견한 세상은 새로운 관점과 상상력을 만나 생경하면서도 유쾌한 장면으로 펼쳐지고, 이를 본 사람들은 작은 변화나 발견을 향해 모험을 떠날 용기를 품는다. 이것이 내셔널 지오그래픽과 드림웍스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이다. 글 송경원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암석이라는 칼리니시 거석〉
©Jim Richardson / National Geographic



〈잠수정으로 바다의 바닥을 탐험하고 있는 실비아 열 박사〉
©National Geographic Television / National Geographic



〈쿵푸팬더〉, 2008

〈슈렉〉, 2001

도전과 상상력, 용기로 연 새로운 세상

콘도 요시후미 감독의 〈귀를 기울이면〉은 중학생 소녀가 소설가로 진로를 결정하기까지의 성장담을 담은 영화다. 이 영화에는 설레는 장면이 하나 있다. 그 장면은 방학 중 매일 도서관을 가던 소녀가 고양이를 따라 우연히 종전의 가던 길이 아닌 다른 골목으로 들어서며 시작된다. 특별한 모험의 세계로 떠나는 것이 아니다. 그저 이전에는 가 보지 못했던 옆 골목길에 불과하다. 하지만 소녀에게 한 번도 가 보지 못했던 그 길의 나무 한 그루, 돌담 사이 잎 하나하나까지 모든 게 새롭게 다가온다. 우리는 때론 알지 못했던 것을 새로운 각도에서 처음 접하는 것만으로도 흥분을 느낀다. 새로움과의 만남, 생각지 못한 관점이라는 선물. 모험이 주는 즐거움은 그런 것이다.

카메라가 인간의 눈을 대신한 이래 우리는 보는 대로 상상해 왔다. 사진과 영상은 우리에게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또 하나의 관점, 비유하자면 이전에는 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골목길을 열어 주었다. 하늘에서 찍은 지구부터 발밑 개미들의 세상까지, 처음에는 놀람과 경탄의 대상이었을 그 다양한 시점은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넓히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해 왔다. 아마도 그 정점에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있을 것이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가능한 한 다양한 방식으로 지구 곳곳의 모습을 전달한다. 국내에서 진행되는 세 번째 전시, 〈내셔널 지오그래픽: 미지의 탐사 그리고 발견〉은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지향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전달하는 전시다. 지구 곳곳은 물론 우주까지 누비는 사진작가들의 눈에 포착된 다채로운 풍경은 '미지의 탐사 그리고 발견'이라는 말을 실감하게 한다. 우리가 그 이미지에 경외심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건 단지 이제껏 가 보지 못했던 곳의 광경을 내 눈앞에 보여 준다는 사실 때문만은 아니다. 대자연의 스펙터클 앞에서 인간의 위치를 자각하게 되는 것도 이유 중 하나겠지만 그것도 전부는 아니다.

전인미답의 세계에 가까이 발을 디딜 용기만큼 중요한 것은 그 장면을 어떻게 포착할 것인지, 어떤 시점으로 대상에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상상력이다. 단지 신기한 광경을 찍어 온 것을 넘어 매 장면의 시점이 우리에게 가 보지 못한 길을 알려주는 셈이다. 모험을 위해 반드시 먼저 길을 떠날 필요는 없다. 정면에서 보는 사과와 위에서 내려다본 사과가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 주는 것처럼 중요한 건 사물을 다르게 볼 줄 아는 상상력이다. 끊임없는 도전과 상상력 그리고 이를 실행할 약간의 용기가 결합했을 때 비로소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기존 세계를 뒤집는 참신한 이야기

디즈니, 픽사와 함께 한때 북미 애니메이션의 세 축을 이뤘던 드림웍스의 출발도 비슷했다. 1994년 스티븐 스피버그 감독과 디즈니 출신 애니메이터 제프리 캐천버그, 음반 제작자 데이비드 게펀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드림웍스는 디즈니가 지향하는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가치에 반발하는 작품으로 눈길을 끌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동화를 뒤집어 해석한 〈슈렉〉이다. 물론 처음부터 순탄한 건 아니었다. 초창기 〈이

집트 왕자〉를 비롯한 전통적인 셀 애니메이션을 선보일 때 드림웍스는 북미의 크고 작은 스튜디오 중 하나, 정확히는 디즈니의 아류 취급을 받았다. 하지만 CG 애니메이션으로 판을 옮긴 후 드림웍스는 과감한 결단을 했다. 스스로의 정체성을 안티-디즈니로 설정하고 디즈니식 동화를 재해석하면서 신선한 바람을 몰고 온 것이다. 방식은 의외로 단순했다. 동화는 이래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다른 시각에서 이야기를 시작한 게 전부다. 단지 역할만 바꿨을 뿐인데, 세계가 뒤집혔다. 과격한 공주, 온화한 괴물이란 설정은 참신함을 넘어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 자체를 변화시켰고 아동 중심이었던 애니메이션 시장에 성인 관객을 끌어들이는 일대 파란을 일으켰다.

모험은 거창한 준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저 우리가 믿고 있는 길에서 살짝 벗어나 옆으로 한 걸음만 옮겨 보면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 하지만 그 한 걸음의 발상에 다다르기까지 무수한 시도와 좌절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사실 우리가 진정 주목해야 할 지점은 그에 이르는 과정이다. 드림웍스가 자신들의 이름 그대로 꿈을 현실로 만들기까지는 무수한 도전이 있었다. 〈개미〉는 디즈니의 〈벅스 라이프〉와 맞붙어 참패했고 아드만 스튜디오와 협업한 클레이 애니메이션 역시 상업적으로는 큰 빛을 발하지 못했다. 디즈니의 아류 소리를 들으며 셀 애니메이션을 연이어 제작했다가 적지 않은 손해를 입기도 했다. 〈슈렉〉, 〈쿵푸팬더〉 등 인기 시리즈는 술한 시행착오를 거친 끝에 나온 결과물인 셈이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작가들이 선보이는 단 한 장의 아름다운 사진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진이 있었기에 존재한다. 약간의 용기와 상상력에 더해서 성공적인 모험을 위한 또 하나의 덕목을 꼽으라면 실패를 과정으로 소화할 수 있는 끈기가 아닐까. 분명 모험은 쉬운 일이 아니다. 실패의 위험도 동반한다. 하지만 겁먹을 필요 없다. 모험이란 그야말로 의외의 순간 뜻밖의 선물로 가득한, 두근거리는 길이다. 새로운 세계는 언제나 당신 바로 곁에 있고, 일단 발을 들이면 다음에 펼쳐질 풍경이 궁금해 걸음을 멈추기가 더 힘들어질 것이다.



〈마다가스카〉, 2005
육식동물인 사자와 초식동물인 얼룩말의 우정을 통해 '공존'이라는 주제를 전한다.

글쓴이 송경원은 「씨네21」 기자다. 소설, 만화, 게임, 드라마 등 다양한 취향을 바탕으로 24시간 취미 생활 하듯 글을 쓴다.

Murphy's Law

시간을 분 단위로 쪼개며 준비하는 아침. 겨우 틈을 내 커피를 내리고 식빵을 굽는다. 아무리 바빠도 맨빵으로 아침을 시작하고 싶지는 않아서 잼과 버터를 꺼내 갓 구운 빵에 얹어 바르는 순간! 손에서 탈출한 토스트가 바닥에 떨어진다. 하필 잼을 발라 놓은 면으로. 내 인생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일이 안 좋은 방향으로만 치달을 때 우리는 '머피의 법칙'이라는 말을 쓴다. 머피의 법칙은 1949년 미 공군 엔지니어였던 에드워드 머피가 자신의 실험이 계속 실패한 이유가 한 기술자의 사소한 실수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고 "어떤 일을 하는 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그 중에 한 가지가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면, 누군가가 꼭 그 방법을 쓴다"고 말한 것에서 유래했다. 머피의 법칙은 나에게만 일어나는 재수 없는 법칙 같지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보편적인 법칙이다. 토스트의 잼을 바른 면이 바닥에 떨어지는 것은 회전력 때문으로, 중력을 벗어나지 않는 이상 대부분의 사람이 같은 결과를 맞이한다. 그러나 과학적 확률보다는 내 운명이 불운한 것이라고 믿고 싶은 것이 인간 아닐까?

나만 겪은 것 같은 대재앙! 머피의 법칙과 관련된 경험담을 들려주세요.
독자 업서에 사연을 보내 주신 분 중 두 분을 선정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Now + Moment

라이프스타일

우리나라에서 일년 중 가장 춥다는 소한(小寒)이 지났습니다. 이제 남아 있는 마지막 추위가 지나면 계절은 예외 없이 봄을 알리고 세상에는 따뜻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할 것입니다.

새해에는 부푼 마음으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지만 막상 이루는 것은 별로 없이 허전한 때가 많습니다. 해가 바뀌었다고 이전의 내가 단숨에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새로운 목표를 향해 갈때 희망이 있어 기운이 납니다.

복잡한 세상에서 벗어나 시시각각 달라지는 빛을 관찰할 수 있는 땅으로 떠난 화가의 결심이나, 수백 가지 소원을 실은 천등이 밤하늘을 빛으로 수놓는 모습을 떠올려 보면 나의 목표도 힘을 받겠지요.

타이완에서 가장 큰 명절인 춘절과 함께 새해가 온 것을 알리는 축제, '핑시천등축제'. 밤하늘을 온통 빛으로 물들이는 천등 축제와 핑시선이 지나는 탄광촌에서 타이완의 옛 정취를 그대로 느낄 수 있다. 글·사진, 이지상 여행작가



핑시천등축제로부터 출발하는 타이완 핑시의 밤과 꿈

타이완에서 가장 큰 명절인 춘절과 함께 새해가 온 것을 알리는 축제, '핑시천등축제'. 밤하늘을 온통 빛으로 물들이는 천등 축제와 핑시선이 지나는 탄광촌에서 타이완의 옛 정취를 그대로 느낄 수 있다. 글·사진 이지상 여행작가

Murphy's Law

시간을 분 단위로 쪼개며 준비하는 빵을 굽는다. 아무리 바빠도 맨빵에서 잼과 버터를 꺼내 갓 구운 빵에 스트가 바닥에 떨어진다. 하필 잼이 체 왜 이리든 걸까. 일이 안 좋은 방칙이라는 말을 쓴다. 머피의 법칙은 워드 머피가 자신의 실험이 계속 실패할 수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고 "어떤 일 중에 한 가지가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한 것에서 유래했다. 머피의 법칙은 법칙 같지만 누구에게나 일어난다. 잼을 바른 면이 바닥에 떨어지는 나지 않는 이상 대부분의 사람이 정확률보다는 내 운명이 불운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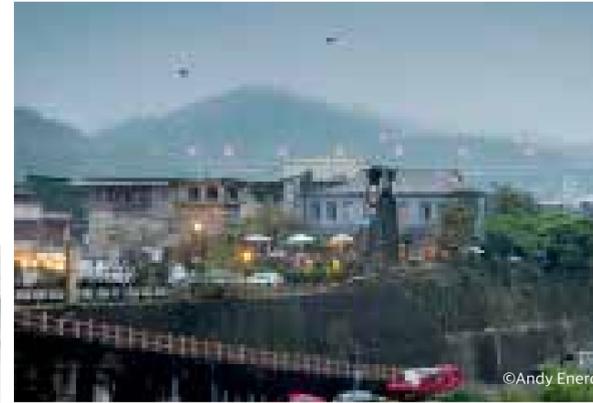
나만 겪은 것 같은 대재앙! 머피의 독자 업서에 사연을 보내 주신 분 중



臺灣



핑시(平溪)는 신베이 시(市) 핑시 구(區)에 위치한 핑시선 철도의 중심 마을로 1920~80년대까지 탄광업이 번창하던 촌락이었다. 타이완의 옛 모습을 간직한 소박하고 담백한 마을 풍경이 골짜기와 하천을 따라 펼쳐진다.



우리나라의 정월 대보름과 타이완의 원소절

우리나라에서는 음력 1월 15일 정월 보름날이 되면 쥐불놀이를 한다. 보름달이 뜨는 밤 횃불을 들고 나가 논밭 두렁의 쥐와 잡초를 일제히 태우는 풍습. 들판에 불을 놓는 것은 겨울을 지낸 들쥐나 해충이 사는 잡초를 태워서 농사에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였지만 해가 진 뒤 사방에서 일어난 불길은 장관을 이루었고 이 쥐불의 크고 작음에 따라 그 해의 풍흉이나 마을의 길흉을 점치기도 했다.

우리의 정월 대보름을 타이완에서는 원소절이라고 한다. 타이완에서는 원소절이 되면 집과 건물 밖, 거리 곳곳에 오색찬란한 등불을 내걸고 요란하게 폭죽을 터뜨리며 새해가 무사태평하기를 기원한다. 이 기간에 수도 타이베이를 비롯한 타이완 전역에서 등불 축제가 열리는데, 미국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세계 최고의 축제 가운데 하나'로 꼽기도 했을 만큼 볼거리가 대단하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핑시 지역에서 열리는 천등(天燈) 축제다.

핑시의 밤하늘을 수놓는 수백 개의 불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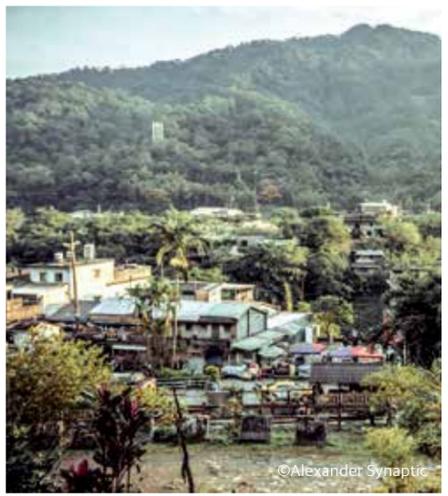
핑시천등축제가 열리는 핑시는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이다. 평소에는 한적한 이 마을이 원소절 기간이 되면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룬다. 홍콩, 일본 같은 이웃 나라는 물론 멀리 서구에서 온 사람까지, 마을은 축제를 즐기러 온 전 세계의 사람들로 북적인다. 원소절 아침에는 천등을 날릴 수 있는 순번표를 받기 위해 줄을 선 사람의 행렬이 끝도 없이 이어지기도 한다.

천등의 유래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 토비(산적)의 약탈이 잦을 때 산으로 도망간 마을 사람들에게 남아 있던 주민들이 이제 내려와도 괜찮다는 신호로 띄웠다는 설도 있고 마을 간 왕래가 어려운 산간벽지의 주민들이 서로의 안녕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는 설도 있다.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 주민들의 평안을 확인하는 수단이었던 천등 띄우기가 지금은 소원을 실어 보내는 즐거운 의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원소절 저녁이 되면 천등 축제 행사장에 수천 명의 사람이 모여든다. 200~300명으로 조가 나뉜 사람들이 자신의 순서가 되면, 어른 두 명이 잡아야 할 만큼 커다란 천등의 사면에 빼곡하게 소원을 쓰고 심지에 불을 붙인 뒤 신호를 기다린다. 신호가 떨어지면 따뜻한 기운을 품고 기다리던 천등이 동시에 떠오르기 시작한다. 캄캄하기만 하던 밤하늘에는 지상에 쏟아졌던 별이 다시 하늘 위로

1 2
3

1. 철도 위를 달리는 핑시선. 총 운행 거리가 12.9km로, 서로 다른 이야기가 있는 9개의 마을을 연결하며 달린다.
2. 핑시의 옆 마을 스펀에서도 간간히 소원이 적힌 천등이 떠오른다. 여행자들은 핑시선 철로위에서 천등을 띄운다.
3. 천등의 사면을 각각 다른 색으로 선택할 수 있는데 빨간색은 건강, 노란색은 금전, 파란색은 사업, 보라색은 학업처럼 색깔별로 의미가 있다.



©Alexander Synaptic

1 2 3

1. 평시선의 중점인 징통은 오래된 골목과 건물이 풍기는 정취가 아름다운 마을이다.
2. 징통은 대나무 마을이라고도 부르는데, 골목과 담벼락에 소원을 적은 대나무통을 주렁주렁 매달아 놓은 것을 볼 수 있다.
3. 옛 석탄 공장 건물을 카페로 바꾼 탄창카페. 넓고 한적한 카페는 천등을 그린 벽화와 책걸상 같은 것으로 꾸몄다.



탄창카페의 안팎에서는 커다란 판다 인형이 손님들 맞거나 징통의 풍경을 내려다보고 있다.

올라가는 듯한 풍경이 연출된다. 사람들은 저마다 달뜬 얼굴로 눈앞의 커다란 불빛이 멀리 점이 되어 사라질 때까지 오래도록 지켜본다.

타이완의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평시선의 탄광촌

평시 지역은 타이완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천등을 띄울 수 있는 곳이다. 평시를 비롯한 인근 지역에서는 일 년 내내 천등을 띄우는 것이 가능하다. 원소절에는 천등 축제 때문에 평시가 단연 주목을 받지만 평소에는 대부분의 관광객이 스펀에서 천등을 띄우고 평시 인근의 허우통(猴硢), 징통(菁棟)과 같은 마을을 더 많이 찾는다. 평시선 열차로 이어지는 이 마을들은 타이완 여행객의 필수 방문 코스가 되었다.

평시선 열차는 타이베이에서 40여 분 떨어진 루이팡에서 탈 수 있다. 평시선은 한때 연간 20만 톤의 석탄을 실어 나르던 산업용 노선이었지만, 1990년대에 탄광이 몰락하면서 석탄 대신 사람을 실어 나르고 있다. 평시선이 거쳐 가는 오래된 탄광촌들은 타이완의 옛 풍경을 그대로 간직해 관광객에게 인기가 높다.

평시선의 주요 마을 중 가장 먼저 도착하게 되는 허우통은 고양이 마을로 유명하다. 역사 주변과 마을이 온통 고양이 그림과 모형으로 뒤덮여 있어 고양이 나라에 온 듯한 기분이 든다. 산언덕에 있는 ‘고양이 마을’이란 뜻의 마오촌(貓村)에서는 고양이가 종종 보인다. 사람들은 고양이가 자거나, 재롱을 피우거나, 한적하게 돌아다니는 모습을 사진에 담느라 여념이 없다. 고양이보다도 사람들의 고양이에 대한 애정과 호기심이 이 마을을 유명하게 만들고 있다.

스펀과 평시를 지나 중점인 징통에 도착하면 역사에서부터 작은 대나무통이 여행자를 반긴다. 사람들의 소원이 적힌 대나무통은 바람에 달랑달랑 흔들리며 말을 하는 것처럼 정겹게 다가온다. 징통에는 목조 가옥으로 이루어진 옛 골목길과 탄광촌의 자취를 보여주는 석탄 생활관, 목조 기차역이 보존되어 있다. 이곳에서는 유난히 철로에서 사진을 찍는 사람이 많다. 영화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의 촬영지였기 때문이다. 학창 시절의 우정과 사랑을 그린 영화는 타이완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영화에 감동받은 이들이 이곳에 와서 그 시절의 추억과 사랑을 불러낸다. 영화를 본 이들에게

탄광촌, 철로, 첫사랑과 학창 시절의 추억이 어우러진 징통은 시간 여행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산언덕에 있는 목조 카페들도 징통의 매력을 더한다. 언덕에는 카페가 몇 개 있는데 특히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탄창카페(炭場咖啡)’에 가면 징통의 풍경을 내려다볼 수 있다. 넓은 내부에는 천등을 날리는 모습과 탄광촌을 그린 벽화가 있고 음악 연주가 가능한 무대도 있다. 운이 좋으면 텅 빈 공간에서 한적함을 즐길 수도 있다. 밀어를 나누는 젊은 남녀가 조용하게 앉아 있고, 창밖에는 한적한 산과 탄광촌의 풍경이 펼쳐진다. 목조 테이블과 의자에는 판다 인형들이 앉아 있어서 동화 속 나라에 온 느낌도 든다. 이런 분위기에 젖어 커피를 한 잔 마시는 시간은 삶에 지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준다. 어린 시절로 돌아온 것도 같고, 문득 각박한 현실에서 빠져나와 다른 세상에 온 느낌도 받는다.

평시선 여행에는 옛 정취를 느끼게 하는 매력이 있다. 급격한 변화 속에서 살아가는 도시인들은 쇠락한 탄광촌의 풍경과 옛 추억에서 상실감을 위로 받는다. 효율성, 생산성을 좇아 오래된 것이 버려

지는 시대에 낡은 탄광촌은 오히려 사람들을 위로하는 마을로 재탄생했다. 지친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은 이런 오래된 마을에 와서 어린 시절의 추억과 학창 시절의 사랑을 떠올리며 소원과 꿈을 적은 천등을 하늘로 날린다. 그때 잊힌 가치, 꿈, 희망이 다시 소생한다. 세상 하나 변한 것 없어도 새로운 세상을 보는 순간이다. 천등 축제는 과거의 전통을 지키는 몸짓이며 동시에 미래의 꿈과 소원을 간절히 염원하는 주문이기도 하다.

CULTURE AND THE TAIWAN

흔히 타이완의 문화를 중국 문화로만 알고 있지만, 타이완은 굴곡진 역사를 거치며 동서양의 여러 문화가 유입된 나라다. 타이완 섬 원주민 문화와 중국 문화는 물론 네덜란드와 일본의 문화적 자취도 발견할 수 있다.

타이완 사람들은 다양한 출신에서 비롯된 새로운 문화를 발전시키면서 그들의 전통과 관습을 함께 보존하고 있다.



고산과 구릉을 물결치듯 덮고 있는 타이완의 차밭

FOOD —— 타이완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풍부한 역사적 배경 덕에 다양한 맛이 공존하는 나라다. 섬나라답게 해산물이 풍족하고 남북으로는 3,000m급의 산맥이 뻗어 있어 지형에 따른 다양한 식재가 난다. 역사적으로는 400여 년 전 스페인과 네덜란드에 점령당한 적이 있고, 이후에는 청나라의 지배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동서양의 식문화가 두루 유입되었다. 현재는 1949년 국민당이 후퇴할 때 건너온 외성인(外省人)의 식문화가 주류를 이루며 중국 대륙 각 지역의 음식을 모두 맛볼 수 있는 대륙 음식의 축소판이 되었다.

TEA —— 음식이 기름진 탓에 타이완의 식사에는 차가 빠지지 않는다. 타이완은 세계적인 명차 산지로서 국토의 3분의 2가 구릉과 산이고 연평균 기온이 높아 한겨울을 제외하고는 늘 차잎을 수확할 수 있다. 타이완에서 생산되는 차는 대부분 반발효차인 우롱차인데, 특히 100% 발효차인 홍차 직전 단계의 청차는 세계 최고라고 한다. 대표적인 차로 동팡메이런(東方美人), 동딩우롱(凍頂烏龍), 가오산우롱(高山烏龍) 등이 있다. 흔히 버블티라고 부르는 전주나이차(珍珠奶茶) 또한 타이완에서 유래했다.



동팡메이런은 사오뤼예찬(小綠葉蟬)이라는 벌레가 먹은 차잎으로 만드는 타이완의 최상급 차다. 벌레가 차잎의 진액을 빨아먹으면서 일어나는 화학반응으로 인해 상큼하고 향긋한 과일 향이 도는 것이 특징이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가 극찬한 차로 알려져 있다.



전주나이차는 1980년대 타이완에 있는 춘수이당(春水堂) 찻집에서 처음 선보였다. 밀크티에 녹말을 건조시켜 만든 타피오카 알갱이를 넣어 차갑게 마신다. 캐나다와 미국에서 버블티라는 이름이 붙은 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즐겨 마시는 차가 되었다.



바로크 양식의 화려함과 민남 전통 양식이 혼합된 다시(大溪) 옛 거리의 석재 장식



타이완의 경극 예술 그룹 타이페이아이(TaipeiEye) 공연 모습

ARCHITECTURE —— 세련된 장식과 그림, 달궐의 경지에 오른 서체, 빼어난 목재 및 석재 조각, 점토 유물과 도자기류가 종합된 타이완의 전통 건축물은 타이완 민속 예술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다. 고대 중국 민남인과 객가 이민족에 의해 건너온 중국 전통 건축 양식은 루강의 룡산스(龍山寺)와 텐허우궁(天后宮), 베이강의 차오톈궁(朝天宮)과 같은 중국식 사원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타이완에는 식민지 시대의 흔적을 볼 수 있는 건축물도 잘 보존되어 있다. 단수이의 홍마오청(紅毛城, Fort San Domingo)은 스페인이 세워 네덜란드가 지배하게 된 요새이고, 타이베이 디화지에(迪化街), 타오위안의 다시(大溪), 타이난의 신후아(新化)에서는 일본인이 건립한 바로크 양식의 건축물을 볼 수 있다. 일본의 식민 통치 시대에 지은 총통부, 행정원, 구 타이완 국립대학병원 건물 등은 역사적으로 귀중한 건축물로 남아 있다.

TRADITIONAL PLAY —— 타이완 사람들은 중국식 경극의 보존과 함께 타이완 특유의 경극과 꼭두각시 인형극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중국 대륙의 경극은 문화대혁명을 거치며 전통을 상실하고 새로운 양상을 띠기 시작한 반면 타이완의 경극은 모체를 온전히 보존하고 있다. 타이완식 경극은 지방 경극의 특색과 향토 음식을 융합해 하나의 완성된 예술 작품으로 표현해 낸 것으로 지금도 활발하게 상연되고 있다.

타이완의 전통 꼭두각시 인형극인 부다이시(布袋戲)는 나무로 인형 머리를 조각하고 몸통에 천으로 된 의상을 입혀 손가락으로 조종하는 손인형극이다. 타이완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아 TV 방송과 영화로 제작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꼭두각시 인형극장의 대대적인 현대화 작업을 통해 특별 효과를 공연에 삽입함으로써 타이완의 젊은 세대로부터 점차 인기를 얻고 있다.



보얼예술특구는 타이완 제2의 도시인 가오슝의 버려진 부두 창고를 개조해 만든 예술 공간이다. 일제강점기에 만든 부두는 쓸모를 다했지만, 25개의 창고에 전시장, 박물관, 영화관, 창작 공간이 들어서면서 젊은 예술가의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다.



타이완 출신의 세계적인 거장 허우샤오시엔의 1993년 영화 <희몽인생>. 전통 인형극 장인으로 교육받고 살아온 티엔루가 노년에 자신의 인생을 회상하는 이야기다.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타이완의 근대사와 초상을 잘 보여 주는 작품이다.

자동차의 역사를 만들어 온

최초의 기록

글. 김한용(《모터그래프》편집장)

새로 나온 현대 그랜저 IG. 센터페이지가 가운데가 좀 허전하다. CD 플레이어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요즘 신차에는 CD 플레이어가 죄다 빠지는 추세다. 모든 것에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는 법이지만 차에 오디오가 처음 장착된 게 얼마 되었다고 벌써 사라지나 싶어 아쉽다.

최초의 카오디오 '모토로라'

최초의 자동차 라디오는 1920년 즈음 장착하기 시작했는데, 여기 쓰인 진공관은 50~250볼트의 전원이 필요했다. 그러나 자동차에서 사용하던 6볼트 배터리는 진공관을 작동시키는 데 적합하지 않았다. 더구나 진동이 심한 차량 구조상 진공관 라디오는 제대로 보급되지 못했다. 말하자면 가정용 전축을 차에 싣고 다니는 격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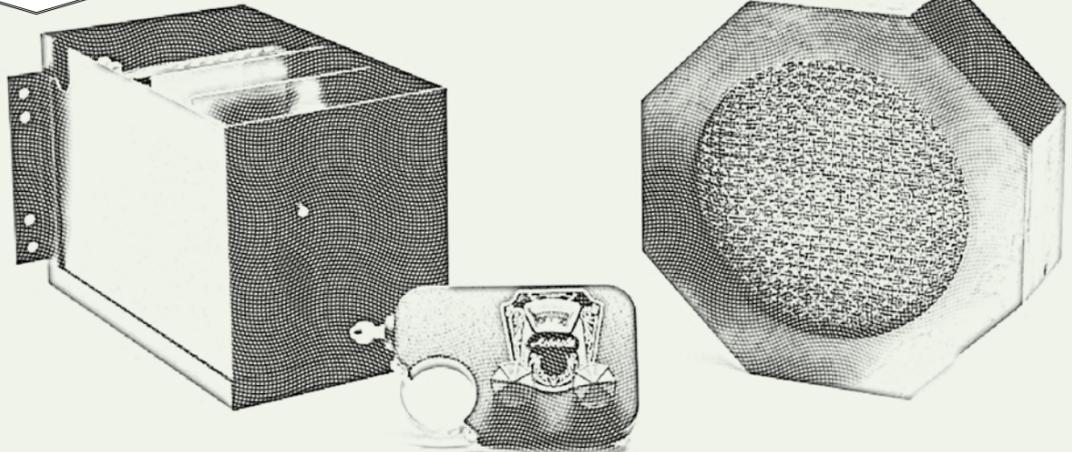
자동차 전용 라디오 장치는 1930년이 되어서야 제대로 장착할 수 있었다. 미국인 갈빈(Galvin)은 자동차를 뜻하는 모터카(Motorcar)와 당시 유명 오디오 빅트로라(Victrola)

라는 단어를 합쳐서 브랜드명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유명한 모토로라(Motorola)다. 한 때 세계의 무선 시장을 호령했지만 지금은 브랜드만 근근이 남아 구글과 중국 레노보에 이리저리 팔리는 신세가 된 바로 그 회사. '모토로라'는 무려 130달러나 했는데, 당시 포드 모델 A 자동차 가격이 540달러였으니 요즘 초고가로 손꼽히는 부메스터 3D 사운드 시스템보다 훨씬 비쌌던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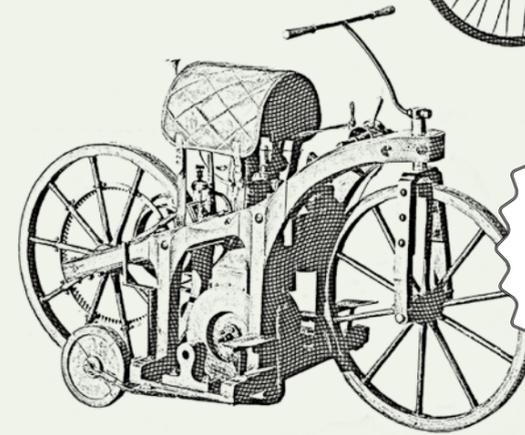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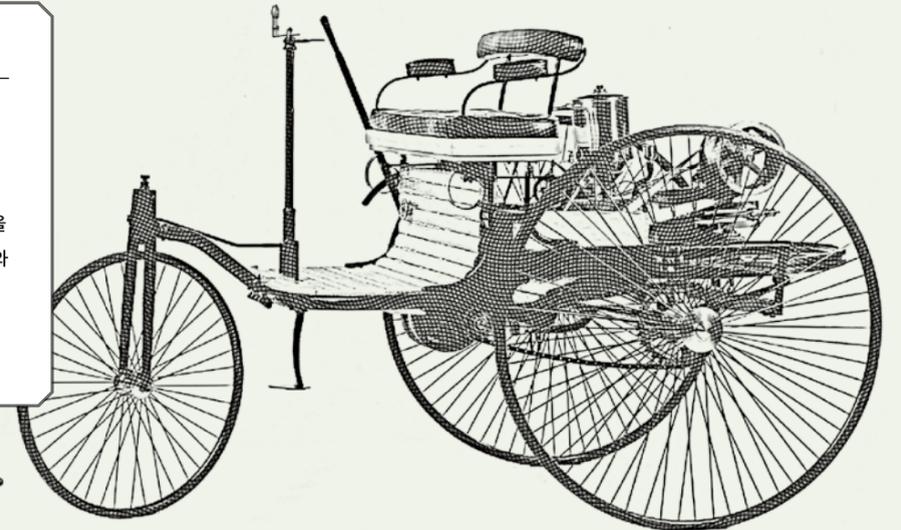
최초의 차, 가장 친환경적인 탈것

우리 곁에 원래부터 있던 것 같지만 실은 자동차 자체가 불과 한두 세대 전에 만들어진 물건이다. 1880년대 도로엔 말과 마차가 가득했는데, 사치스러운 귀족들은 여섯 마리 말이 끄는, 말하자면 6마력 마차를 타고 신나게 달리기도 했다. 거리는 말이 배설한 똥오줌으로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을 정도였고 자기 몸집의 몇 배나 되는 풀을 매일 먹여 치우는 통에 인근 숲이 모조리 사라졌다.

— 1930 —
최초의 카오디오
...
모토로라가 선보인 최초의 자동차 라디오 5T71. 수신기, 스피커, 제어기 등으로 구성돼 있다. 대시 보드를 분리해 스피커와 수신기를 설치하고 지붕 라이너와 뒷자석을 제거해 안테나와 배터리를 설치하는 등 과정이 복잡했는데, 출시 당시에는 소비자가 직접 차에 설치했어야 했다.



— 1888 —
최초의 자동차 여행
...
칼 벤츠의 부인 베르타 벤츠는 완성된 차를 대중에 보이는 것을 꺼렸던 남편 대신 차를 끌고 나와 두 아들을 태우고 친정까지 106km의 길을 달렸다.



— 1885 —
최초의 이륜자동차
...
문이 좁은 작업실을 드나들기 위해 폭을 좁게 디자인한 고틀리프 다임러와 빌헬름 마이바흐의 자동차는 자동차라기보다 오토바이에 가까운 모습이다.



최초의 주행에서 휘발유보다 먼저 사용한 리그로인

이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1886년 칼 벤츠가 만든 최초의 가솔린 자동차는 이후 파리에서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홍보되었다. 실제 이 차는 독일 슈투트가르트에 있는 벤츠 박물관에 '특허받은 자동차(Patent Motorwagen)'라는 이름으로 전시되어 있는데, 천연 나무로 짠 뼈대만 앙상해 나름대로 친환경적인 모습이다.

1886년 칼 벤츠는 "말 없이 달리는 마차를 제작하겠다"며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했다. 핵심 부품인 가솔린 엔진은 이미 천재 발명가 니콜라우스 오토가 세상에 내놓았지만, 오토는 이 엔진을 자동차에 장착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 칼 벤츠 이전엔 누구도 '말 없이 달리는 마차'를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자동차'라는 이름의 특허를 낼 수 있었다.

그렇지만 벤츠가 최초의 차를 만들었다고 하면 아쉬울 사람도 있다. 오토와 함께 일

하던 고틀리프 다임러와 빌헬름 마이바흐는 칼 벤츠보다 먼저 탈것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는 자동차라기보다는 오토바이에 가까운 형태였다. 문이 좁은 작업실을 드나들기 위해선 어쩔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작업실 문이 조금만 더 넓었더라도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른다.

최초의 차를 만든 칼 벤츠와 최초의 오토바이를 만든 고틀리프 다임러는 서로 미워했다. 다임러는 틈만 나면 벤츠가 자신의 차를 베꼈다고 비꼬았고, 둘은 살아 있는 동안 단 한번도 마주친 적이 없다. 이들이 사망한 후 두 회사는 합쳐져 다임러 벤츠라는 자동차 회사가 되었고 지금은 다임러AG라는 이름으로 변경해 메르세데스 벤츠 브랜드를 내놓고 있다.

'최초'를 낳은 첫 자동차 여행 자동차 역사에서 칼 벤츠보다 중요한 인물은

사실 그의 아내다. 칼 벤츠는 차를 만들고 특허를 내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완성된 차를 남들에게 설명하는 걸 부끄러워해 망하기 직전이었다. "차는 참 좋는데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식이었다. 반면 그의 아내 베르타 벤츠는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여성이었다. 그녀는 차를 만든 지 2년이나 흘렸는데도 제대로 거리를 달려 보지도 않은 것에 적잖이 분노했고, 결국 남편 몰래 차를 끌고 거리로 나오기로 결심했다. 만하임에서 출발한 베르타 벤츠는 13세와 15세 두 아들을 태우고 곧장 포츠하임의 친정으로 향했다. 그동안 기껏 몇백 미터, 길어야 수킬로밖에 주행하지 않은 '자동차'라는 물건을 끌고 단번에 달린 거리가 편도 106km나 되었다.

물론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니었다. 남편이 잠든 새벽에 출발한 그녀는 휘발유도 싣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 지점인 비스로흐



— 1888 —
 최초의 자동차 판매

 베르타 벤츠의 자동차 여행 소식을 접한 프랑스인 에밀 로저는 칼 벤츠로부터 라이선스와 설계도를 받아 프랑스에서 최초로 차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Wiesloch)에 있는 약국에서 이를 대용할 리그로인(Ligroin)을 사서 넣었다. 이후 비스 로흐의 약국은 유명해져 세계 최초의 주유소가 되었고 매년 베르타 벤츠를 기리는 여행객으로 북적댄다. 말하자면 가짜 휘발유의 역사가 진짜 휘발유보다 긴 셈이다.

베르타 벤츠의 놀라운 대처 능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주행 중 연료 라인이 막히자 머리핀으로 이를 뚫었고, 스타킹을 덧대 세계 최초의 연료필터를 스스로 제작해 장착했다. 나무로 된 브레이크가 제대로 말을 듣지 않자 현지 구둑방에 가서 가죽을 덧대 세계 최초의 브레이크 패드를 제작하기도 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어난 이 세계 최초 자동차 여행은 보는 이들에게 엄청난 관심을 끌었는데, 일부는 '말이 없이 마차만으로 이동하는 악마'라며 이들을 두려워하기도 했다.

초대박을 터뜨린 세계 최초의 '시승' 이후

모든 자동차 회사는 자동차를 몰아 보이거나, 몰아 보게 하는 걸 당연시했고 '시승'이라는 방식이 적어도 자동차 업계에선 상식처럼 통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프랑스인 에밀 로저는 이 놀라운 뉴스를 접하고 단숨에 칼 벤츠를 찾아갔다. 재촉하듯 라이선스와 설계도를 받아 1888년부터 프랑스에서 이 차량을 생산·판매하기 시작했다. 최초로 차를 만든 것은 독일인이지만, 최초로 차를 판매하기 시작한 것은 프랑스인인 셈이다.

가솔린 엔진에 비해 100년이나 앞섰던 증기 엔진 내연기관 차량에 앞서 증기기관을 이용한 자동차도 있었다. 1769년 프랑스의 니콜라스 조제프 퀴뇨는 사람이 탈 수 있는 최초의 증기 자동차를 만들었다. 가솔린 내연기관 엔진에 비해 100년이나 앞선 것이다. 물론 이 증기차는 핸들도 제대로 돌릴 수 없는 우스꽝스러운

것이었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나름대로 장족의 발전을 거뒀다. 18세기 유럽에서는 증기기관 버스가 나올 정도로 증기차가 보편적으로 이용되었다.

미국에서는 내연기관에 대한 특허를 피하기 어려워 20세기 초까지도 증기자동차가 생산되었다. 100년 가까이 발전한 증기기관은 성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다. 1906년 플로리다에서 개최된 '스피드위크' 경기(현재 데이토나 500)에서는 증기터빈을 이용해 시속 203km를 내는 기록도 나왔다. 요즘 어지간한 가솔린 차량으로도 따라잡기 만만치 않은 속도다.

증기 엔진은 당시 가솔린 엔진보다 성능이 탁월해 12명을 태우고 시속 60km까지 달릴 수 있었다. 하지만 헨리 포드가 시속 70km 이상으로 달릴 수 있고 '대량생산'이 가능한 포드 모델 T를 내놓으면서 증기기관 자동차는 점차 사라졌다.



— 1769 —
 최초의 증기기관 자동차

 니콜라스 조제프 퀴뇨가 만든 최초의 증기기관 자동차. 엄청난 덩치에 핸들도 제대로 돌릴 수 없었던 이 자동차는 최초로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도 유명하다.

— 1908 —
 최초로 대량생산된 모델

 헨리 포드는 대량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최초의 대량생산 모델인 포드 모델 T를 내놓았다. 이를 통해 당시 2000달러를 상회하던 자동차 가격이 초기 850달러에서 300달러 선까지 낮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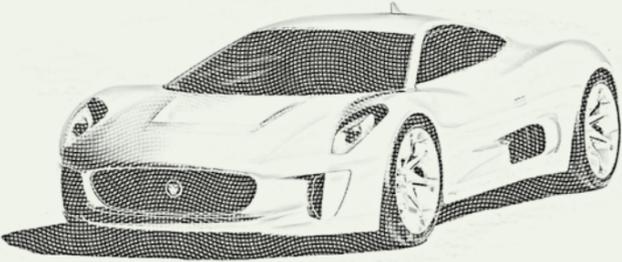
그런데 최근 전기차 시대를 맞아 증기 터빈을 이용한 자동차가 다시 관심을 받고 있다. 피스톤 내연기관 엔진은 왕복 운전 및 회전 운동을 해야 하는 기계적 한계 때문에 효율이 떨어지고 높은 회전수까지 동작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마이크로 터빈은 일단 적정 회전속도까지 돌면 피스톤 엔진에 비해 성능과 효율이 월등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동안 마이크로 터빈은 높은 효율에도 불구하고 가감속이 쉽지 않다는 점 때문에 자동차 엔진으로는 적합하지 않았다. 하지만 전기차 시대에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 터빈은 발전만 하고, 전기모터는 저장된 전기를 이용하면 되기 때문이다. 마이크로 터빈의 효율은 가솔린 엔진보다 최소 2배 이상 우수하다. 따라서 가솔린 엔진이 자동차의 혁명을 가져왔다면 전기차 시대는 터빈이 열어갈 가능성이 높다.

현재까지 마이크로 터빈을 자동차에 장착한 사례는 재규어가 유일하다. 재규어는 2010년 C-X75라는 멋진 슈퍼카 시제품을 선보여 기자들에게 시승을 해 보이기도 했다. 이 차는 한 번 충전으로 900km를 달릴 수 있고, 바퀴마다 각각 단 전기모터는 총 780마력을 내는 엄청난 슈퍼 전기차였다. 문제는 14억 원이라는 지나치게 비싼 가격이었는데, 가격만 적절했다면 시대를 뒤바꿔 놓을 만한 작품이었다. 일부 전문가는 가까운 미래에 터빈으로 동작하는 전기차가 배터리 전기차와 함께 자동차 시장의 큰 축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2010 —
 최초의 마이크로 터빈 자동차

 최초로 마이크로 터빈을 장착한 재규어의 C-X75. 한 번 충전으로 900km를 달릴 수 있고, 총 780마력을 내는 슈퍼 전기차로 터빈으로 동작하는 전기차의 기념비적 모델이다.



자유와 시간을 넘어선 행복,

제주의 자연을 담은 예술가 이왈종 화백의 여가식미 餘暇食美

그의 작품은 정겹고 따뜻하고 때론 유쾌하다.
위트 넘치는 그림체와 밝고 화사한 색감으로 서귀포의
자연과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를 건네는 이왈종 화백.
자연과 교감하며 자유로운 감성을 화폭에 담아 행복을
전하는 그의 여가식미를 들어 본다. 글: 김혜란 사진: 정호

27년 전 추계예대 교수였던 그는 어지러운 세상을 떠나 홀연히 제주로 내려왔다. 그리고 치열하게 작업에만 몰두했다. '제주 생활의 중도와 연기'를 테마로 제주의 자연과 교감하며 풍요로운 일상을 화폭에 채워 나갔다. 이왈종 화백은 마음속에서 수없이 저울질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탐욕과 이기주의, 쾌락과 고통, 사랑과 증오 모두를 융합해 화합을 이끄는 것을 '중도'라 정의하고, 작품 활동을 통해 어느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않는 삶 속에서 '인간의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졌다. 원색의 밝고 화려한 색채로 한국 전통의 애환과 해학 정서를 담은 그의 작품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림은 부정과도 같아요. 색에는 힘이 있어서 기분이 안 좋았던 사람도 밝은 그림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죠. 그래서 그림에 어떤 색을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술 작품에서 색채가 주는 감성은 어떻게 표출하느냐에 따라 전달하는 메시지가 달라진다. 그는 '작품은 재미있어야 한다'는 명분 아래 밝은색을 사용해 감성을 자극하고, 한국 민화에서 보여 주는 해학성을 모든 작품에 녹여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작품을 내놓는다.

이 화백은 꽃을 모티프로 작업하는데, 작품에 등장하는 꽃과 나무 모두가 월종미술관 화단에 있다. 꽃양귀비, 수선화, 실목화, 동백꽃 등이 피면 어김없이 그의 작품 속 주인공이 된다. 화단 옆에 자리 잡은 두 마리 강아지도 예외는 없다. 그의 화법은 원근법을 뛰어넘어 현실과 비현실이 공존하는 자유 분방함을 보여 준다. 작품에서는 커다란 나무에 사람보다 큰 새와 날아다니는 물고기, 꽃, 자동차, 골프 치는 사람 등이 한데 어우러져 생활한다. 제주의 소소한 일상을 나무에 가득 채워 넣은 그는 숲속에서 생활하는 우리의 모습과 아름다운 제주의 자연을 예찬하고 있다.

“작품으로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고 싶어요. 목표를 낮게 잡고 욕심을 조금 버리면 행복과 가까워져요.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면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편안할 때 찾아오는 것이 행복이며, 행복은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는 이왈종 화백. 언제나 따뜻한 감성으로 세상과 소통하며 행복을 찾는 작가로 길이 남길 바란다.





시를 읽으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얼굴에서 빛이 나지요.

餘 취미 | 마음을 치유하는 읍조림, 시(詩)
"시중유화 화중유시(詩中有畫 畫中有詩)"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 가운데 그림이 있고, 그림 가운데 시가 있다"는 뜻이지요. 저는 사람들에게 늘 "시를 읽어야 한다"고 말할 정도로 시를 좋아합니다. 시를 읽으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얼굴에서 빛이 나지요. 주로 '당시'를 읽고, 젊은 시인들의 시도 찾아보는 편입니다. 시를 읽다가 시상이 떠오르면 종이에 옮겨 적기도 합니다. 좋아하는 시를 읽고 시를 쓰는 것은 감성을 풍부하게 하고 작업에 많은 영감을 줍니다.

暇 장소 | 제주를 담은 특별한 공간, 월종미술관
미술관 설계에만 2년 반을 매달렸고, 건축물을 도자기로 굽고 실측하는 등 직접 설계에 참여했기에 지금까지도 아쉬운 부분이 없어요. 미술관은 독특한 외관이 특징인데, 빛이 공중에서 내려오거나 사방에서 터 나가기 전기 없이도 전시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미술관에 들어서면 층마다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부가 정말 좋아요. 옥상정원에는 용맹함과 부지런함, 의협심이 강한 동물인 닭을 소재로 한 목조각 작품이 있습니다. 예술품과 자연 풍광이 어우러진 월종미술관에서 제주의 특별함을 느껴 보시길 바랍니다.

食 음식 | 영혼을 위로하는 음식, 막걸리
저에게 술은 영혼의 음식입니다. 춘화가 그려진 양철 주전자와 도기잔에 막걸리를 따라 마시면 그 맛이 일품이지요. 절제된 생활에 가끔 피곤함을 느낄 때, 막걸리 한잔이 힘이 됩니다. 혼자 한잔 기울이며 이런저런 생각도 하고, 일과를 돌아보기도 하지요. 사람을 만나는 시간보다 작업에 몰두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 목힌 스트레스를 술로 풀기도 합니다. 술이 건강에 좋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저는 새벽녘 제주 바다를 바라보며 술 한잔 즐길 때 가장 행복합니다.(웃음)

美 애장품 | 시선을 이끄는 작품, 컬래버레이션 머그잔
월종미술관 2층 한쪽 벽에는 제가 아끼는 작품만 모아 전시해 두었습니다. 도자 머그잔과 조각상, 춘화를 그린 골프공과 찻잔 그리고 주전자 등이 있지요. 그중 체크무늬 머그잔은 커피 전문점 드롭탑과 컬래버레이션으로 제작한 상품입니다. 바둑판 모양의 디자인으로 뚜껑에는 화려한 수탉이 앉아 있지요. 미술관 옆 드롭탑은 아티스틱으로도 운영되고 있는데 그곳에서 머그잔을 비롯한 다양한 상품과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절제된 생활에 가끔 피곤함을 느낄 때,

막걸리 한잔이 힘이 됩니다.



예술품과 자연 풍광이 어우러진 월종미술관 옥상정원에서는 제주의 특별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마법이 깃든 <오즈의 마법사> 도로시 구두

1939년 영화 <오즈의 마법사>가 상영되자 관객들은 황홀한 색채의 화면과 환상적으로 표현한 마법의 세계에 단숨에 매료되었다. 시선을 압도하는 의상 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것이 도로시의 빨간 구두. 화려하게 반짝이던 이 루비 구두는 스와로브스키의 크리스털로 만들었다. 험난했던 모험이 마침내 끝났을 때 도로시의 구두는 그녀를 집으로 데려다준다. 그런데 도로시는 왜 그토록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을까?

글: 소효령 사진 제공: 스와로브스키, 스미소니언박물관



Somewhere over the Rainbow

영화 <오즈의 마법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삽입곡 'Over the Rainbow'이다. 무지개 너머 어딘가에 있을 무결의 세계를 노래한 곡. 캔자스에 붙어닥친 거대한 회오리바람은 도로시를 그곳에 데려다 놓았다. 실제로 황량한 들판에 먼지가 자욱하던 캔자스와 달리 무지개 너머 세계에는 푸른 잔디에 꽃들이 수놓아져 있고 화려한 복색의 난쟁이들이 흥겹게 노래를 부른다.

영화에서는 캔자스가 배경인 장면은 흑백 화면으로, 마법의 세계가 나올 때는 총천연색의 컬러 화면으로 표현했는데 화려하고 정교하게 제작한 마법 세계의 의상과 세트는 지금 봐도 감탄스럽다.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이 도로시가 신은 루비 구두다. 프랭크 바움의 1900년 원작에서는 은으로 만든 구두였지만 MGM 영화사가 컬러 영화로 제작하면서 강렬한 붉은색의 구두로 바꿨다.

전 세계 디자이너에 의해 다시 태어난 도로시 구두

영화에서 매혹적으로 반짝이던 루비 구두는 스와로브스키의 크리스털로 만든 것이다. 1895년 오스트리아의 다니엘 스와로브스키(D. Swarovski)가 창립한 스와로브스키는 크리스털 업계의 압도적인 강자로서 크리스털 장식품, 주얼리, 상들리에, 라이플총 조준경 등의 제품을 생산한다. 스와로브스키는 영화 산업과도 인연이 깊다. 영화 <티파니에서 아침을>에서 오드리 헵번이 쓴 티아라나 메릴린 먼로가 케네디 대통령의 생일 파티에서 'Happy Birthday Mr. President'를 부를 때 입었던 드레스도 스와로브스키의 크리스털로 장식했다.

<오즈의 마법사> 제작 70주년을 기념해 2009년 스와로브스키와 전 세계 유명 디자이너가 함께 루비 구두를 재해석했다. 다이앤 본 퍼스텐버그, 마놀로 블라닉, 지미추, 크리스찬 루부탱 등 19명의 디자이너가 스와로브스키의 붉은 크리스털을 이용해 '오즈의 마법사 루비 슬리퍼 컬렉션'을 완성했다. 원본을 오마주한 테스토니의 디자인에서 양발을 모으면 커다란 리본 장식이 완성되는 모스키노의 디자인까지, 톱 디자이너들의 개성이 한껏 드러난 컬렉션은 세계 패션계의 주목을 받았다. '루비 슬리퍼 컬렉션'으로 다시 태어난 도로시 구두는 경매를 통해 판매되었고 수익금은 어린이 에이즈 퇴치 연구 기금으로 기부되기도 했다.

There's no place like home?

자신이 노래하던 이상적인 세계에 도착한 도로시의 바람은 오직 하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오직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면서 험난한 여정을 통과한다. 도로시는 왜 그토록 집으로 돌아가려 했을까? 영화에서 그 이유는 한마디의 대사로 요약된다. "There's no place like home." 그러니까 집만 한 곳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다. 황량한 잿빛 들판과 강아지 토토를 괴롭히는 못된 이웃이 있는 곳이지만 그곳이 자신이 살던 집이기 때문이었다.

<오즈의 마법사> 원작자 프랭크 바움은 여성 참정권론자였던 장모와 아내의 영향으로 페미니스트 성향을 지녔고 이 동화의 주인공을 도로시라는 당찬 소녀로 설정했다. 그러나 험난한 모험을 주도적으로 헤쳐나갔던 도로시도 결국 고향의 집을 선택하게 된다. 새로운 세계에서 만난 허수아비, 양철 나무꾼, 겁쟁이 사자와 친구가 되고 그들을 사랑하게 되었지만 도로시에게는 전통적인 집이 아니면 집이 될 수 없었던 것이다.

모험의 주인공이 여성이고 여성이 여정의 주도적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이 작품은 당대 혹은 지금도 주목할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도로시가 결국 전통적인 가치관을 고수하게 한다는 점에서 분명한 한계도 있다. 만약 지금의 도로시라면, 그녀가 그러한 모험을 강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마지막에 어떤 선택을 했을까? 매력적인 빨간 구두를 신고 새롭게 만난 친구들과 새로운 세계에서 자신의 행복을 찾지 않았을까?

1939's



영화 촬영 당시 배우 주디 갈랜드가 신은 루비 구두. 현재는 스미소니언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다. 2016년에 구두의 수선과 보존을 위한 기금 모금을 벌였는데, 불과 6일 만에 30만 달러의 목표액을 달성해 화제가 되었다.

2009's



영화 <오즈의 마법사> 제작 70년 주년을 기념해 탄생한 '루비 슬리퍼 컬렉션'. 위의 구두는 이탈리아 여성 슈즈 브랜드 세르지오 로시(Sergio Rossi)가 디자인한 것이다.

BOOTING



버튼 하나로 스스로를 깨우는 놀라운 기술

비엔나 전투가 끝난 후, 유럽 국가들은 오스트리아의 리더십 아래로 뿔뿔 뿔쳐 유럽에서 아예 터키를 몰아내려고 전쟁을 계속했다. 그러던 중 독일의 '문차우젠 남작'이라는 괴짜 사나이가 나타났다. 문차우젠 남작은 어렸을 때부터 비엔나 전투의 무용담을 책으로 읽으며, 자기도 크면 군인이 되어서 터키군을 혼내 주겠다는 꿈을 품었다. 문제는 문차우젠이 성인이 되었을 때 막상 조국인 독일은 터키와 전쟁 중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당시 터키와 가장 격렬히 싸우던 나라는 러시아였다. 그는 터키군과 직접 싸워 보려고 자기 나라도 아닌 러시아 군대에 장교로 자원 입대했다. 문차우젠 남작은 아름다운 해변에 있는 사령부로 발령받아 아주 편한 군 생활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전쟁터에 다녀오기만 하면 마치 터키군을 혼자 다 물리친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지어내 떠돌고 다녔다. 여러 거짓말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웃게 한 이야기는 눈에 빠졌을 때 손으로 자기 머리카락을 스스로 잡아당겨서 빠져나왔다는 이야기였다.

논리학에서는 외부의 힘이 필요한데 내부에서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다가 일을 더 키우는 것을 '문차우젠 딜레마'라고 한다. 200년 후, 컴퓨터 엔지니어들은 '문차우젠 딜레마'에 빠져 있었다. 그들은 버튼 하나만 누르면 컴퓨터가 알아서 내부에 전기를 돌려 작동되는 기술을 발명하려 했는데, 문제는 꺼져 있는 컴퓨터가 어떻게 스스로를 작동시키냐는 것이었다. 흥미롭게도 미국에선 문차우젠 남작의 이야기가 왜곡되어서 머리카락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부츠를 끌어 올려 눈에서 빠져나왔다고 전해졌다. 컴퓨터 과학자들은 버튼 하나로 컴퓨터를 켜는 기능을 마치 문차우젠과 부츠 이야기같이 말도 안 되는 것이라며 '부츠를 잡아당기다', 즉 '부팅'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마침내 실제로 컴퓨터가 버튼 하나를 인지하면 스스로를 깨우는 기술이 개발되었고, 오늘날까지 컴퓨터나 휴대폰이 켜지는 것을 '부팅한다'라고 말한다.

『이야기 인문학』 조승연, 김경사는 언어 속에 숨겨진 이야기와 지식을 재미있게 전달하는 인문서다. 2017년 『아주좋은날』에서는 『이야기 인문학』의 언어 유래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를 발췌해 소개한다.

Aju + Style

아주 스토리

훌륭한 리더는 일을 지시하는 대신 사람들이 왜 이 일을 해야 하는가를 알려 명확한 동기를 심어 주는 사람입니다. 성과에 대해 묻는 대신 함께 만들어 갈 근사한 미래를 앞서 제시하는 사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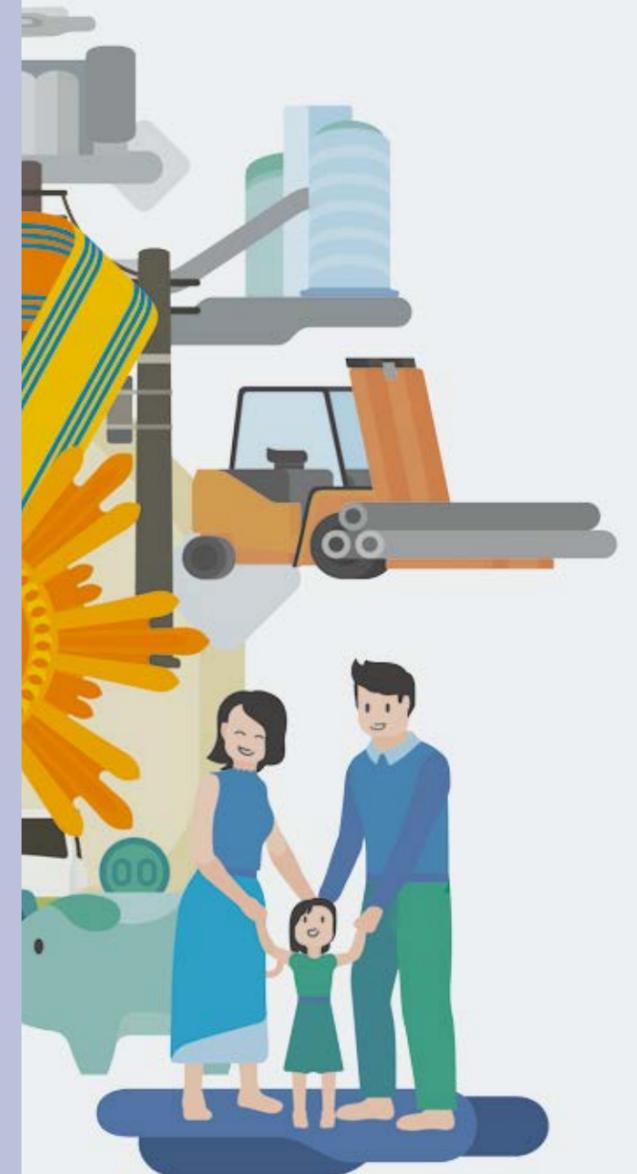
고(故) 청남 문태식 아주그룹 창업주는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일을 하는 것이 기업의 소명이라 말하던 리더였습니다. 일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동기를 이어받은 아주는 항상 더 좋은 세상을 꿈꿉니다.

아주가 걸어온 따뜻한 길을 돌아봅니다.

이는 앞으로도 고객 곁에서 함께 꿈꾸고, 이로움을 나누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푸른 희망을 가꿔 가겠다는 아주의 단단한 약속입니다.

문태식 창업주의 2주기 추모식은 조용하고 검소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하지만 그의 뜻은 밝게 빛나며 긴 여운을 남겼다. 2016년 국민추천포상 제도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훈한 창업주의 사업보국 정신과 그를 이어가는 아주인들이 함께 만드는 길은 언제까지나 이어지며 푸른 희망을 전할 것이다.

글. 유재원 일러스트. 박성재 사진 제공. 아주



BOO

버튼 하나로 스스로

비엔나 전투가 끝난 후, 유럽 국가들은 오스트리아를 몰아내려고 전쟁을 계속했다. 그러던 중 독일은 터키군을 혼내 주겠다는 꿈을 품었다. 그는 터키군과 직접 싸워 보려고 자기 나라를 떠나 터키로 향했다. 문차우젠 남작은 아름다운 해변에 있는 사령부에서 근무했다. 그런데 전쟁터에 다녀오기만 하면 마치 전쟁터에 다녀온 것처럼 사람들이 그를 쳐다보았다. 여러 거짓말 중에서도 가장 그럴듯한 이야기를 할 때 손으로 자기 머리카락을 스스로 잡아당겨

논리학에서는 외부의 힘이 필요한데 내부에서 스스로 움직이는 것을 '문차우젠 딜레마'라고 한다. 200년 후, 컴퓨터 과학자들은 버튼 하나만 누르면 컴퓨터가 알아서 움직이게 하는 데, 문제는 꺼져 있는 컴퓨터가 어떻게 스스로 움직이게 할까. 문차우젠 남작의 이야기가 왜곡되어서 머리카락을 스스로 잡아당겨서 움직인다고 전해졌다. 컴퓨터 과학자들은 버튼 하나만 누르면 컴퓨터가 알아서 움직이게 하는 데, 문제는 꺼져 있는 컴퓨터가 어떻게 스스로 움직이게 할까. 문차우젠 남작의 이야기가 왜곡되어서 머리카락을 스스로 잡아당겨서 움직인다고 전해졌다. 컴퓨터 과학자들은 버튼 하나만 누르면 컴퓨터가 알아서 움직이게 하는 데, 문제는 꺼져 있는 컴퓨터가 어떻게 스스로 움직이게 할까.

『이야기 인문학』 조승연, 김영사는 언어 속에 숨겨진 이야기의 본질을 찾아냈다. 2017년 『아주좋은날』에서는 『이야기 인문학』의 언어

인생도처유청산(人生到處有青山).

인생을 살다 보면
언제나 어려움은 있으나,

노력해 어려움을 극복하면
청산을 만들 수 있다.

고(故) 청남 문태식 아주그룹 창업주

고(故) 청남 문태식 아주그룹 창업주
2주기 추모식 및 대한민국 국민훈장 수훈

묵묵히 빛나는 선행 아주 푸른 희망의 길

문태식 창업주의 2주기 추모식은 조용하고 검소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하지만 그의 뜻은 밝게 빛나며 긴 여운을 남겼다. 2016년 국민추천포상 제도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훈한 창업주의 사업보국 정신과 그를 이어가는 아주인들이 함께 만드는 길은 언제까지나 이어지며 푸른 희망을 전할 것이다.

글: 유재원 일러스트: 박성재 사진 제공: 아주



“국가와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를 고민해
 창업했고 국가관을 강하게 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
 그동안의 사업은 조금도 빠뜨어지지 않고
 오늘날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고(故) 청남 문태식 아주그룹 창업주



아주 큰 가장, 그의 뜻을 기리다

2016년 12월 26일 청남 문태식 아주그룹 창업주의 2주기 추모식이 남양주 선영에서 열렸다. 추모 연주, 추모 영상 상영 등 다양한 행사와 함께 진행했던 1주기 추모식과 달리 2주기 추모식은 문규영 아주 회장을 비롯한 아주, 신아주, AJ가족 임직원 등 8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차분하고 경건하게 치러졌다. 선영 참배 및 헌화로만 진행한 추모식의 부드러운 분위기와 그 안에 강직하게 자리한 아주의 창업정신은 창업주의 생전 모습을 떠올리게 했다.

다섯 평 남짓한 집무실과 오래된 가구에 담긴 검소하고 겸손한 성품, 부지런히 현장을 누비며 미래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던 강인한 사업가적 기질, 손때 묻은 주판으로 살뜰히 챙기던 직원들의 월급과 1년에 한 번 고사 때마다 정성들여 준비한 음식으로 직원들을 배불리 먹이고자 했던 가장의 마음. 그의 올곧은 성정은 아주의 정신이 되었고, 넓고 따뜻한 마음은 세상을 향한 나눔으로 자랐다. 차가운 바람 속, 직원들의 얼굴에는 그리움이 어렸으나 창업주의 정신을 이어 가겠다는 굳은 다짐만큼은 흰 국화에 담겨 선영 앞에 가지런히 쌓였다.

“타계 2주기를 맞이하며 명예회장님을 다시 생각해 보면 늘 기업을 튼튼하게 하고, 기업을 통해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셨습니다. 또한 한결같은 개혁자 정신으로 언제나 자신을 편하고 쉬운 곳에 놓지 않

고, 어렵더라도 변화하며 미래를 개척하는 마음으로 오늘에 이르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규영 회장은 사회 구성원들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창업자의 정신이자 아주가 걸어야 할 길임을 강조하며 추모식을 끝맺었다. 그리고 며칠 뒤, 문태식 창업주는 아주가 가고자 하는 길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살아생전 행했던 그의 실천이, 2016 국민추천포상 제도를 통한 대한민국 국민훈장 동백장 수훈을 계기로 재조명된 덕분이다.



2주기 추모식에서 헌화를 통해 문태식 창업주의 뜻을 되새긴 아주 가족



대한민국 국민훈장
 국민훈장은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 분야에 공적을 세워 국민의 복지 향상과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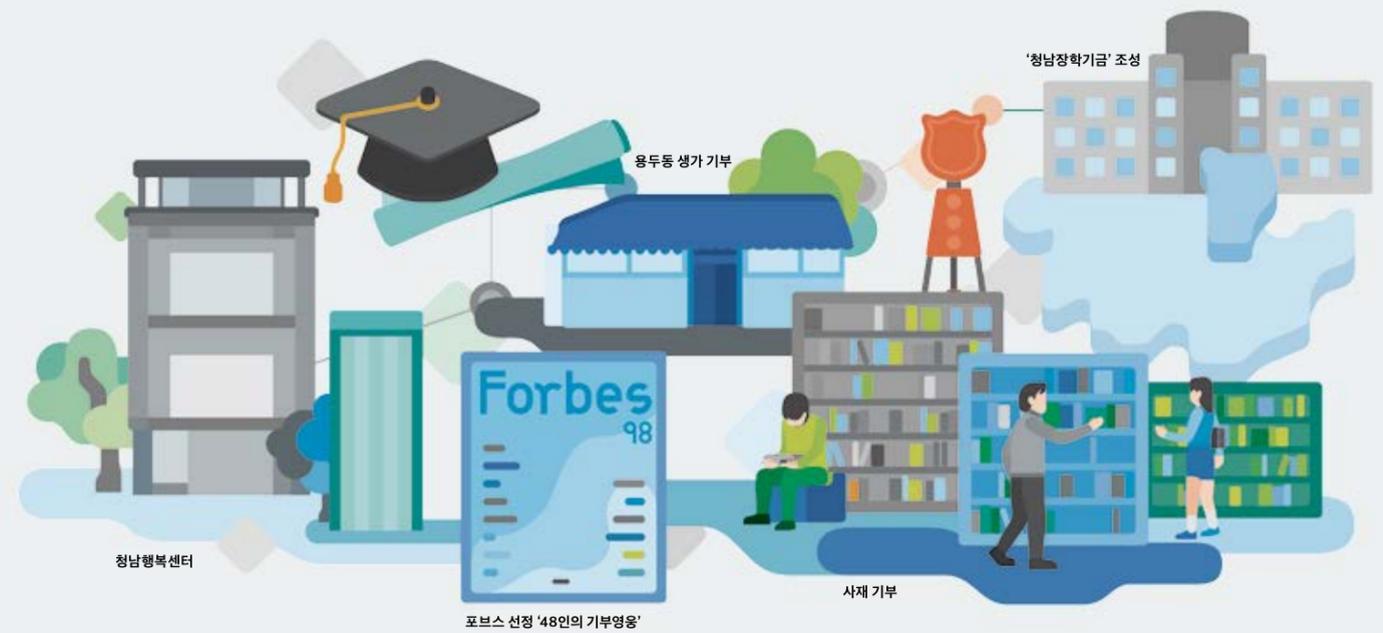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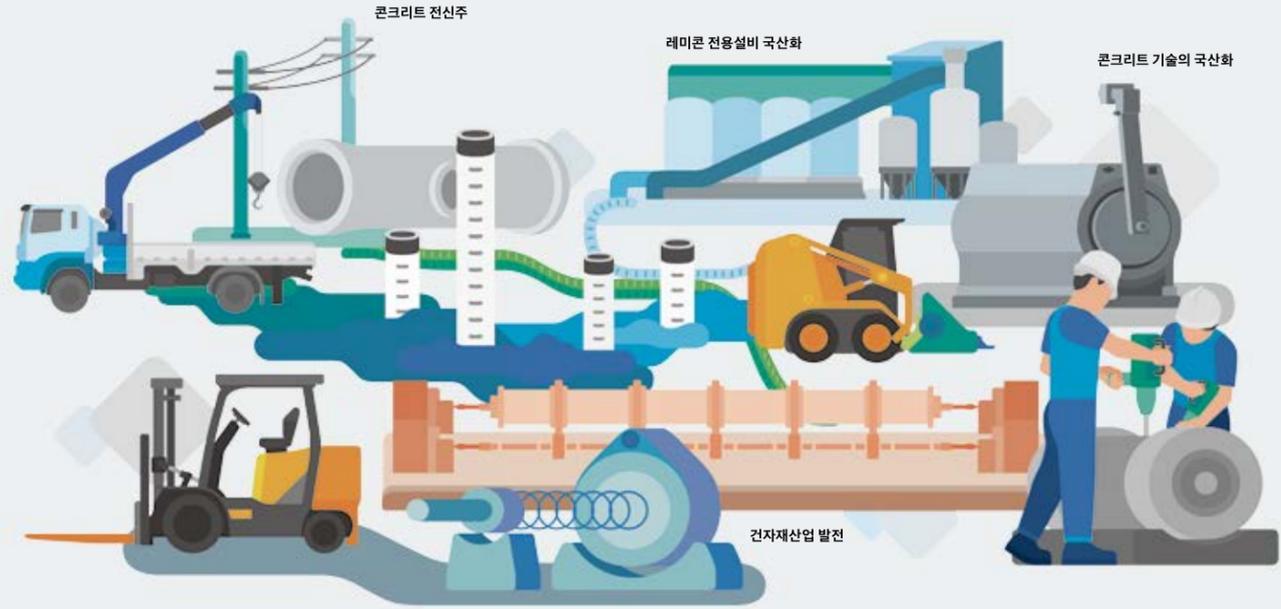
아주 따뜻한 실천, 묵묵히 빛나다

추모식이 있는 지 3일 뒤인 12월 29일 정부서울청사 19층에서 ‘2016 국민추천포상 수여식’이 열렸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에 의거해 훈장을 수여하는 행정자치부 최고 권위의 수훈 행사로, ‘자랑스러운 이웃에게 훈장을 달아주세요’라는 제목의 캠페인을 통해 일반 시민들로부터 수훈 후보자를 추천받는 것이 특징이다. 사회 곳곳에 숨어 있는 공로자를 발굴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묵묵히 헌신·노력하며 밝고 따뜻한 사회를 위해 공헌한 숨은 이웃을 추천할 수 있다. 공모가 마감된 후에는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실제 수훈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러한 제도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문태식 창업주의 국민훈장 수훈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역대 수상자를 살펴봐도, 기업가나 유명인보다는 한평생 젓갈 장사를 해 번 돈을 37년간 초·중·고·대학교에 꾸준히 장학금으로 기부해 온 유양선 님(2012), 30년간 갓 구운 빵을 인근 아동복지시설 아이들에게 전해 온 동네 빵집 사장 오상도 님(2013) 등 우리 사회 곳곳에서 남몰래 선행을 베풀 일반인의 비중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아프리카 수단 톤즈 마을에서 8년간 교육·의료 봉사를 펼쳐 수단의 슈바이처라 불리는 고(故) 이태석 신부(2011)를 제외하면 세간에 알려진 인물이 거의 없는 정도다. 이처럼

대한민국 국민훈장은 국민 정서에 울림을 전하는 진실된 실천에 국민들이 손수 부여하는 값진 상이다. 그렇다면 문태식 창업주는 어떻게 이 자리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일까.

그 배경에는 중랑교육발전협의회 홍순철 회장의 추천이 있었다. 중랑구 교육 발전의 든든한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는 이유에서였다. 2013년 문태식 창업주는 “어렵고 힘든 시기였던 1960년대에 중랑구에서 시작해 아주가 현재의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었으니, 지역사회에 보답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말과 함께 중랑구에 토지 14필지 26만 3,799m²(약 8만 평)의 사재를 기부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기부 토지 중 일부가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 부지로 편입되며 76억 원 상당의 토지 보상비가 발생했는데, 창업주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그를 ‘청남장학기금’으로 조성했다. 인재 육성을 통해 나라를 부강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창업주의 평소 신념이었기 때문이다. 이 덕에 중랑구는 매년 400여 명의 초·중·고등학생에게 4억 3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고, 2013년 장학 기금 조성 기준으로 서울 전체 25개 구 가운데 1위 지역자치단체로 발돋움했다. 이를 계기로 문태식 창업주는 「포브스(Forbes)」가 선정한 ‘48인의 기부영웅’에 선정되기도 했다. 국민추천포상을 위해 접수된 추천서의 내용은 약 2016년 7월부터 5개월



대한민국 국민훈장 동백장을 대리 수훈한 문재영 회장, 문규영 회장과 문덕영 부회장

동안 엄격한 절차를 거치며 검증되었다. 서류 심사, 관할 구청이 주관하는 현장 조사, 공적 조사, 행정자치부의 실사, 현장 인터뷰를 거쳐 12월 초가 되어서야 최종 수훈이 결정되었다. 기나긴 시간이었지만 과정에 과정을 더해 갈수록 문태식 창업주의 공적이 드러나게 되었다. 모교인 동국대에 발전기금 5억 원을 기탁하고 생전 용두동 생가를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한 이력, 그 자리에 현재 저소득 소외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교육센터가 마련되고 있는 등 조용히 펼쳐 온 따뜻한 선행의 자취는 수훈의 의미를 말해준다.

행사 당일 아주 문규영 회장과 신아주 문재영 회장, AJ가족 문덕영 부회장 세 형제는 다 함께 수훈식에 참석해 진심 어린 감사와 기쁨을 전했다. 문태식 창업주가 한평생 강조하며 실천해 온 ‘사업보국(事業報國)’의 정신, ‘국가와 사회를 위해 무엇이든 이바지하겠다’는 진심이 국민들에게 진실한 감동을 전했기에 받을 수 있었던 영광된 훈장. 하지만 세 형제는 살아생전 자신의 선행이 알려지는 것을 누구보다 조심스러워했던 창업주의 모습을 기리며 말을 아꼈다. 아주 또한 순간의 기쁨보다는 창업주의 뜻과 정신을 이어 갈 수 있는 추모 사업을 사회공헌 사업과 연계해 다각도로 모색하고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아주 푸른 세상, 함께 가꾸다

인생도처유청산(人生到處有靑山). 인생을 살다 보면 언제나 어려움은 있으나, 노력해 어려움을 극복하면 청산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다. 문태식 창업주가 삶에 임하는 자세, 그 자체였던 말이기도 하다. 그는 어려움 속에서도 먼 미래를 바라보고 희망을 그리는 개척자였다. 그가 대한민국 국민훈장을 수훈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개척자 정신에서 비롯된 그의 사업가로서의 공적에서 찾을 수 있다.

1928년 2월 문태식 창업주는 한반도가 일제의 지배하에 놓여 있던 시기에 태어났다. 일제강점기와 해방을 겪으며, 국가 발전의 기반이 되는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게 된 그에게 1960년 한국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국가 경제를 재건하는 일은 시대적 과업이자 숙명으로 다가왔다. 그는 암울하던 조국의 상황에 좌절하는 대신 국가를 다시 부강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집중했다.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생각이 곧 나의 비전이 되었지요. 아주산업은 그런 미래에 대한 생각으로부터 탄생했습니다. 콘크리트로 만들면 5분이면 가능한 일인데 비싼 외화를 주고 몇 달, 몇 년씩 걸려 굳이 나무 전주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업을 통해 국가 경제를 일으키고 국민 생활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문태식 창업주는 국가 산업 발전을 위해 수입 나무 전주를 콘크리트 전주로 국산화하며 전기 보급에 일조, 국가 산업 발전의 초석을 마련했다. 이후에도 그는 국가 경제를 재건하겠다는 일념으로 일본에 건너가 기술 개발에 전념했고, 마침내 원심력 콘크리트 기술의 국산화에 성공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 콘크리트 공장과 도로가 건설되었고 국가 경제 또한 일어나기 시작했다.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일관된 자세로 푸른 희망을 꿈꾸었기에 가능한 결과였다.

창업주가 지녔던 희망의 시선과 사업보국의 정신은 여전히 아주의 단단한 기반이다. 그 기반 위에서 아주인들은 이웃과 사회에 대한 따뜻한 실천을 이어가고자 한다. 창업주의 정신을 계승해 부강한 국가와 행복한 사회로 향하는 길을 함께 걸어가는 아주인들. 그들은 추모 2주기를 맞아 한층 더 밝고 선명해진 길 앞에 섰다. 아주인들은 앞으로도 내딛는 걸음, 걸음마다 창업주의 숭고한 기업가 정신과 사업보국의 철학을 되새기며 묵묵하고 바르게 그 길을 걸어 나갈 것이다.



제12회 사랑의 부싷돌

외진 골목
시린 마음들
따뜻한
온기로 채우다

하루 사이 기온이 뚝 떨어지며 수도권에 한파주의보까지 내려졌지만, 아주 임직원들의 얼굴에는 붉은 땀방울이 맺혔다. 한겨울 매서운 추위도 식하지 못한 열기의 현장은 아주의 열두 번째 사랑의 부싷돌 연탄나눔 행사가 펼쳐진 성북구 정릉동과 도봉구 안골마을. 12월의 찬 골목을 뜨끈한 온기로 채운 아주인들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글: 김수영 사진: 전석병

온몸으로 함께하는 아주 따뜻한 전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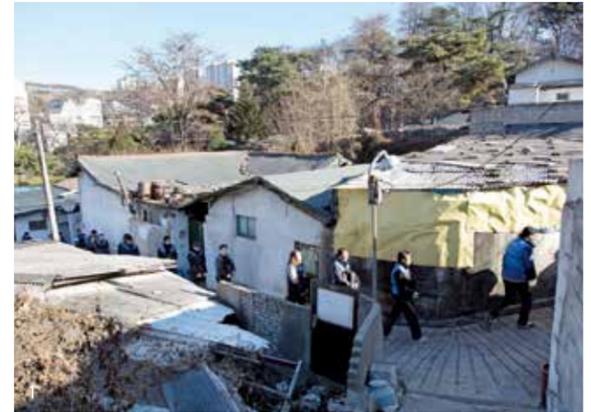
가파른 비탈이 시작되는 정릉동 초입 공터에 아주인 80여 명이 모였다. 아주복지재단에서 열두 해째 진행 중인 장수 프로그램, 사랑의 부싷돌 연탄나눔 행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는 참이다. 첫 순서는 개인 기부 증서 전달식. 나눔에 동참하고 싶어 하는 임직원들의 뜻에 따라 2015년부터는 개인 단위의 연탄 기부를 받기 시작했다. 2016년에도 물심양면으로 나눔을 실천하길 원하는 여러 임직원이 기부에 동참했다.

이번 연탄나눔 행사에는 새로운 얼굴들이 많이 참여했다. 개인 기부 임직원 중 대표로 기부 증서를 받은 비서실 배진영 매니저, 아주IB투자 기획팀 오창현 매니저를 비롯한 신규 입사자 50여 명을 중심으로 봉사단을 꾸린 덕분이다. 이제는 아주의 전통이 된 '사랑의 부싷돌' 정신을 신규 입사자들과도 공유하여 마음을 함께하기 위함이다. 자리를 같이한 문규영 회장 역시 연탄 나눔 행사의 의미를 되짚으며 처음 참여하는 신규 입사자들을 격려했다.

“이 행사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어려운 이웃에 대한 마음의 빛을 몸으로 실천하며 갚아 보자는 취지로 시작한 것입니다. 올해는 새 가족이 많이 참여해 더욱 의미가 큼니다. 추운 날씨지만 힘을 모아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을 환하게 밝히자는 마음으로 애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나눔을 통해 많은 것을 느끼고 얻어 가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신규 입사자 참여에 더해 봉사 지역도 새롭게 선정했다. 올겨울 첫 인연을 맺게 된 정릉동과 안골마을은 외부 지원이 부족해 실질적인 도움이 절실한 곳이다. 특히 정릉동은 골목이 좁고 가팔라 집집마다 연탄 나르는 품이 많이 든다. 그러다 보니 배달을 받으려 한 장에 650원 하는 연탄값이 1,000원까지 훌쩍 오르기 일쑤. 유기자 통장은 그마저도 배달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겨울이면 연탄 장만이 마을의 큰 걱정이라고 말한다. 아주의 연탄나눔이 유난히 반갑고 고마운 이유다.

“집집마다 어려운 사연도 부족한 것도 많지만 연탄 배달을 해주는 것만큼 반가운 게 없어요. 차 들어오는 큰길부터 집까지, 좁은 골목길이 멀기도 하고 비탈도 심해서 겨울 다가오면 연탄 들여놓는 게 큰일이거든요.”



2



1. 정릉동의 좁고 가파른 언덕을 온기로 채우는 아주 임직원
2. 손발 맞춰 열심히 연탄을 옮기는 아주인들
3. 정릉3동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는 아주 문규영 회장



3



주민들의 집 안 연탄 저장고까지 손수 연탄을 배달해 주는 아주 임직원

서울 시내에 살 곳을 마련하지 못한 사람들이 북한산 자락 가파른 비탈에 하나 둘 등지를 틀면서 생겨난 정릉동은 일명 정릉골로 불린다. 두 사람이 서면 어깨가 맞닿는 좁은 골목은 비탈진 데다 울퉁불퉁해 3.6kg 연탄 두 장을 품에 안고 한 걸음 올라설 때마다 거친 숨이 절로 터져 나왔다.

“넘어지는 것보다 연탄 깨뜨릴까 봐 무서워!”

조심스럽게 발을 내딛는 아주인들의 얼굴에는 금세 땀방울이 맺혔지만, 연탄을 옮기는 발걸음은 더더질 줄 몰랐다. 2015년 입사한 아주저축은행 경영플랫폼팀 한영수 매니저는 아주인이 되어, 이웃을 돕는 의미 있는 전통에 동참한다는 생각을 하니 힘이 난다고 말하며 웃었다.

“길이 험해서 그런지 연탄 두 장이 생각보다 무겁네요. 어렵게 사는 분들이 느낄 삶의 무게가 이렇게 묵직하겠구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래도 이렇게나마 잠시 그 짐을 나눠 든다는 생각으로 발걸음만은 가볍게 하려고 합니다.”

연탄의 무게를 처음 느껴 본, 서툴지만 열정 넘치는 새로운 얼굴들 사이로 해마다 참여하다시피 한 ‘단골’ 봉사자들의 노련한 모습

도 눈에 띈다. 예년보다 길어진 봉사 시간과 신규 입사자 위주의 모집, 처음 방문하는 생소한 지역 등 많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참여 의지를 밝힌 열혈 봉사자들이다. 1회부터 거의 빠짐없이 연탄나눔에 참여해 온 아주저축은행 김효성 본부장은 해마다 이웃을 도우며 감사하는 법을 배우는 이 시간이 개인적으로도 소중하다고 말했다.

“가끔이지만 이렇게 시간을 내서 이웃에게 도움을 주다 보면,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 가족과 삶에, 그리고 직장에 새삼 감사하는 마음을 느끼게 되죠.”

널리 따뜻하게, 더불어 행복하게

품 안에 연탄 두 장을 소중히 감싸든 아주인들이 정릉골 골목을 바삐 오가는 사이, 도봉구 안골마을에서도 아주인의 손으로 옮겨진 연탄이 집집마다 쌓여 가고 있었다. 도봉산 자락에 자리 잡은 안골마을은 정릉동처럼 가파른 지형은 아니지만, 산마을 특유의 한기와 열악한 주거 환경 탓에 겨울이 길고도 매섭다. 한 지붕 아래 여섯 가구씩 모여 사는 집부터 홀로 사는 어르신들까지, 난방비를 감당할 형편이 안 되는 주민들은 혹독한 겨울 추위를 후원받은 연탄을 아



비서실 배진영 매니저

“집집마다 주민들이 나오셔서 연탄 쌓여 가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시더라고요. 밥 안 먹어도 배부른 듯한 그분들의 표정을 보며 제 마음도 채워지는 기분이었어요. 몸은 생각보다 고단했지만, 앞으로도 매년 꼭 참여할 예정입니다.”



아주IB투자 오창현 매니저

“저는 어릴 때 달동네에 살았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연탄나눔 봉사에 참여하는 의미가 남다른데요. 아주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올해는 첫아이를 출산한 기념으로 기부 활동에도 함께해 더욱 따뜻한 마음입니다.”



밝은 웃음으로 직원들의 힘을 북돋아 준 자동차부문 유재형 대표



끈끈한 동료애와 뜨거운 열정으로 연탄나눔을 마친 아주의 신규 입사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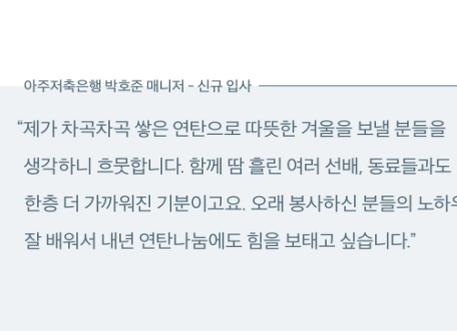
껴 때며 견뎌나갔다고 했다. 도움의 손길이 없으면 그나마 연탄도 때지 못할 주민들 사정을 뻔히 아는 이정우 통장은 그래도 울겨울은 아주 덕에 한시름 놓았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우리 마을의 연탄 때는 집들은 사실 후원받은 연탄만 가지고 겨울을 나는 형편이에요. 그동안은 그래도 근근이 겨울 넘길 만큼은 지원이 있었는데, 울겨울에는 대내외적으로 어수선한 탓인지 후원 소식이 뜸해서 어르신들도 저도 걱정이 많았죠. 그러던 차에 아주에서 이렇게 도움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덕분에 우리 마을 어르신들이 울겨울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게 되었어요.”

한파 속에 한층 차갑게 얼어붙은 안골마을, 온몸으로 한기가 파고드는 날씨에도 안골마을 어르신들은 자꾸만 골목길을 서성였다. ‘혹시 우리 집을 빠뜨리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에 집 안에서만 기다릴 수 없었던 것이다. 겨울을 맞이한 안골마을 주민들에게 연탄 한 장이 갖는 의미는 그만큼 무겁다. 주민들의 마음이 오롯이 전해졌기 때문일까. 연탄을 옮기고 쌓느라 허리는 빠근하고 손이며웃, 얼굴까지 연탄재로 검게 얼룩졌어도 아주인들은 하나같이 밝은 표정으로 부지런히 연탄을 날랐다. 그렇게 이른 아침부터 늦은 오후

까지 이어진 연탄나눔을 끝내고 돌아서는 길, 마을 어르신이 아주인의 손에 에너지 음료 한 병을 가만히 쥐어 주셨다. 그렇게라도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은 어르신의 손에 담긴 마음이, 그 손을 맞잡고 쉬이 놓지 못하는 아주인의 마음으로 전해지는 순간이었다.

이날 아주인이 정릉동과 안골마을 집집마다 배달한 연탄은 총 6,400장이었다. 이 밖에도 아주는 울겨울 전국 250세대에 5만 8,000장의 연탄을 지원했다. 이렇게 12년간 지원해 온 연탄 한 장, 한 장에는 아주의 진심이 담겨 있다. 개인의 행복을 넘어 사회의 행복, 더 나아가 온 나라의 행복을 만들어 가는 것이 기업의 책임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겨울을 즐겁게 보내는 이웃이 한 명도 없었으면 하는 바람, 그런 마음을 부싯돌 삼아 세상을 밝고 따뜻한 온기로 가득 채울 때까지 아주인 한 사람, 한 사람은 빈자의 겨울을 지키는 연탄처럼 훈훈한 불꽃을 피워 낼 것이다.



아주저축은행 박호준 매니저 - 신규 입사

“제가 차곡차곡 쌓은 연탄으로 따뜻한 겨울을 보낼 분들을 생각하니 흐뭇합니다. 함께 땀 흘린 여러 선배, 동료들과도 한층 더 가까워진 기분이고요. 오래 봉사하신 분들의 노하우를 잘 배워서 내년 연탄나눔에도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아주캐피탈 오화경 대표이사 - 연탄나눔 봉사 8년 차

“아직 우리 사회에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직장 생활에서 얻는 큰 기쁨 중 하나지요. 봉사를 통해 힘든 이웃을 배려하는 방법을 배우는 아주인이 많아질수록 우리 회사의 내일도 더 밝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AJU NEWS

Volume 47 아주 뉴스

「아주좋은날」 2017 NEW YEAR

www.aju.co.kr

【아주】2017 丁酉年 아주 시무식 시행

2017년 1월 2일, '2017 정유년 아주 시무식'이 열렸다. 행사는 '2016 Review' 동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최우수 사업장과 핵심가치 실천리더 포상, 문규영 회장의 신년사, 케이크 커팅식 순으로 진행되었다. 첫 순서는 '2016 Review' 동영상 시청. 화면에는 아주산업 레미콘 100만 루베 달성부터 여름 베트남 해외봉사, 겨울 연탄나눔 봉사인 사랑의부킷돌 현장은 물론, 청남 문태식 창업주의 대한민국 국민훈장 동백장 수훈 소식까지, 아주의 한 해가 알차게 담겨 있었다.

다음으로 최우수 사업장과 핵심가치 실천리더 포상이 이어졌다. 레미콘 100만 루베라는 최대 경영 실적을 달성한 아주산업 광명사업소와 채권센터 종합평가 5위에서 1위로 올라선 아주캐피탈 충호남센터 호남출장소는 2016 최우수 사업장으로 선정되며 최고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더불어 아주산업 구매팀 천만용 팀장을 비롯한 6인이 아주의 5대 핵심가치 행동규범을 종합적으로 실천한 핵심가치 실천리더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또한 리모델링 작업을 진행해 오던 청남빌딩 17층 '아주인재개발센터'가



'AJU인재다움'이라는 이름으로 아주인들 앞에 첫선을 보였다.

시상이 끝난 후에는 문규영 회장이 신년사를 전했다. 문 회장은 "다시 어려운 도전을 해야 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본질적 역량 강화, 수평적 소통을 통한 집단지성, 그리고 혁신의 일상화가 이루어진다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아주만의 성장 스토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라는 말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정진한다면 혁신을 이뤄갈 수 있음을 당부했다. 마무리로 아주인들은 정유년 닭의 울음소리보다 희망찬 파이팅 구호를 함께 외치며 떡 케이크를 커팅하는 것으로 2017년 시무식을 마무리했다.



【아주복지재단】'2016 서초 Dream Festival' 감사패 수상

'서초 Dream Festival'은 13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들의 꿈과 성장을 지원하는 국가 아동복지사업인 서초드림스타트의 1년 성과 발표회다. 2016년 11월 18일 '2016 서초 Dream Festival'에 참가한 아주복지재단은 서초구청장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2007년부터 '아주 행복한 공부방'을 운영하며 지역 아동들의 꿈을 응원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특히 '꿈 찾기 프로젝트'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주어진

환경 탓에 꿈꿀 기회를 누리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다양한 체험 활동을 제공, 마음껏 꿈꿀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준 덕분이었다. 마침 '2016 서초 Dream Festival' 2부의 첫 순서로 '꿈 찾기 프로젝트'에 참가했던 두 학생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이에 아주복지재단은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프로젝트를 확대해갈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아주】AJU START-UP DEMODAY

아주는 경영 노하우 공유 및 벤처 투자 지원을 통한 건강한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그 대표 사례가 2016년 9월 창립 56주년 기념식 AND(AJU Never-ending Dreams)에서 소개한 'NEST'와 'TR', 그리고 아주큐엠에스의 추천을 통해 육성 중인 'iCarri'.

총 3개 스타트업은 현재 아주빌딩 1층에 마련한 협업 공간 '스파크플러스'에 입주해 있다. AND로부터 12주가 지난 2016년 12월 27일 스파크플러스에서, 이들의 인큐베이팅 착수 및 진행 보고회이자 투자 요청 발표회인 AJU START-UP DEMODAY가 진행됐다. 행

사 당일, 세 명의 아주인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한 자립을 꿈꾸는 각 스타트업의 대표가 되어 손님들을 맞았다. 소비자가 직접 중고차를 사고 팔 수 있는 직거래 플랫폼을 제시한 'NEST'(권순호 대표), 무거운 짐을 들고 공항이나 숙소까지 이동해야 하는 여행자의 불편함에 대한 솔루션을 제안한 Luggage Delivery Service 'iCarri'(김교준 대표)는 사업 시작을 위한 3개월간의 인큐베이팅 착수를 알렸다. 반면 편리하게 여행을 기록하고 공유할 수 있는 모바일 플랫폼을 설계한 'TR'(박상현 대표)은 완성된 애플리케이션을 공개해 큰 호응을 얻었다.

행사를 주관한 미래전략실은 "아주에서는 스타트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서포트할 예정입니다. 도전을 격려하고, 실패에서 얻은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또 다른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라는 말로 사내 아이디어를 발굴, 스타트업으로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주저축은행】가족친화경영, GPTW 대상 및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국무총리상 수상

아주저축은행의 가족친화경영은 사내 구성원과 그들의 가정이 더불어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다. 아주저축은행은 2016년 한 해 동안, 매월 셋째 주 1시간 조기 퇴근으로 가족 간의 화목을 도모하는 '아주 좋은 날', 이른

아침 유치원에 아이를 맡기고 출근해야 하는 부모들의 시름을 덜어준 '시차 출퇴근제(자율 근무제)', 장기 휴가를 권장하는 '리차드 클럽' 등 다양한 제도를 시행해왔다. 그 결과 2016년 12월 15일 GPTW Institute가 주관하는 '2016

GPTW 시상식 및 경영 컨퍼런스'에서 '한국에서 가장 존경 받는 CEO상(오하경 대표)', '대한민국 GPTW 혁신리더상(박한영 매니저)'을 수상,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에 2년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기록했다.

또한 2016년 12월 2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6년 가족친화인증 수여식 및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기관 시상식'에서는 '가족친화경영' 인증을 받았으며,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국무총리상까지 수여했다. 이 과정에서는 특히 육아 휴직, 출산 휴가, 수유 여건 보장, 출산 후 업무 복귀 등 직장 내 여성의 성장과 리더십 증진을 위해 기울인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주저축은행은 2016년의 결실을 발판 삼아, 앞으로도 직원과 가정이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힘쓸 것이라는 다짐을 전했다.



[아주] '2017 같이(가치) 나누는 행복한 대화' 아주캄보디아, 아주베트남에서 진행

'같이(가치) 나누는 행복한 대화'는 아주의 특별한 소통문화로, 최고경영자와 직원들이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철학과 비전을 공유하며 화합의 길로 나아가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2017년 '같이(가치) 나누는 행복한 대화'의 첫 방문지는 아주캄보디아와 아주베트남. 먼저 아주캄보디아를 방문한 문규영 회장은 사업장을 순시하며, 해외법인 직원들과 인사를 나눴다. 이후 사업장 미팅룸에서 우수사원 포상 및 경영 현황 공유의 시간을 가졌고, 주재원, 현지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와 혁신 사례를 공유하기도 했다. 문 회장은 2017 신년사 배너에, 웅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손글씨로 적어 함께 전했다.

이어서 방문한 아주베트남에서도 문 회장은 사업장 순시, 우수 사원 포상, 직원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또한 콘크리트 조형물에 혁신과 행복의 내용이 담긴 덕담을 적어주는 것도 잊지 않았다. 두 해외법인은 이번에 선정된 우수 사원들에게 아주 본사 방문을 포함한 한국 연수

프로그램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아주는 해외법인과 함께 다양한 기업 문화 프로그램을 나누며 성장해갈 예정이다.

[아주오토리움] 볼보자동차그룹 하칸 사무엘슨 CEO, 아주오토리움 일산 전시장 방문

스웨덴 볼보자동차그룹의 하칸 사무엘슨 CEO가 2016년 11월 3일,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그동안 모기업이 있는 중국과 미국, 유럽 시장에 주력해 오다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한국 시장을 살펴보기 위해 방문한 것. 이는 볼보자동차가 한국에 진출한 지 28년 만의 첫 방문이었다.

하칸 사무엘슨 CEO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라스 다니엘슨 수석 부사장, 야리 코호넨 부사장, 크리스 웨일즈 이사 및 이윤모 볼보코리아 대표와 함께 아주오토리움 일산 전시장을 찾았다. 하칸 사무엘슨 CEO는 아주오토리움에서 운영하는 일산 전시장이 볼보자동차가 추구하는 콘셉트를 가장 잘 구현한 전시장 중 하나이기에 꼭 한번 방문해보고 싶었다는 말과 함께 아주오토리움에 대한 관심을 표현했다. 아주오토리움 직원들은 전시장의 소품과 서비스센터, 정비 작업장을 차례로 안내하고 2층 회의실에서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다. 이후에는 장시간 질의응답을 나누며 돈독한 파트너십을 다졌다.



[아주산업] 박상일 대표, '2016 대한민국 좋은기업 최고경영자상' 수상

2016년 11월 23일 아주산업 박상일 대표는 서울 롯데월드호텔에서 열린 '2016 대한민국 좋은기업 콘퍼런스'에서 '대한민국 좋은기업 최고경영자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는 이 상은 한국표준협회와 서울대 경영정보연구소가 기업의 경영 성과, 고객 만족, 인재 존중, 리더십, 사회공헌, 지속가능경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시상한다.

박 대표는 1984년 아주산업에 입사해 대표까지 오른 유일무이한 인물로, 건자재 사업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오랜 경험, 업무 전문성을 기반으로 아주산업의 미래 성장을 이끌어 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2016년 2월 공식 취임 이후 펼쳐 온 영업 경쟁력 강화, 신규 사업 개발 및 해외 시장 개척, 글로벌 인재 양성 제도 마련과 같은 실적과 수평적인 기업 문화 조성,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다양한 추진 활동에 대한 공로도 인정받았다. 그는 "앞으로도 기업 경영의 사회적 가치와 의미를 생각하며,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경영을

적극 실천해 나가겠다."는 수상 소감을 통해 앞으로도 이웃과 더불어 기업 비전을 실현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아주] 2016 하반기 아주 신규입사자 교육

2016년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2박 3일간, '2016 하반기 아주 신규입사자 교육'이 진행되었다.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써닝리더십센터에 모인 아주 각 계열사 신규 입사자 63명은 아주에 대한 이해와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준비된 프로그램에 참가, 아주인으로서 첫발을 뚝 준비를 시작했다.

신규입사자 교육 프로그램의 주제는 크게 세 가지. 아주의 역사와 성장 과정에 대해 알고

기업 문화 및 경영 철학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아주의 이해', 혁신과 창의성에 대해 이해하고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보는 '변화와 혁신', 업무의 기본 소양인 기본 회계 지식을 익힐 수 있는 '회계의 이해'였다.

첫날에는 비서실 커뮤니케이션팀 탁용원 팀장의 강의를 시작으로 개척자 정신을 비롯한 아주의 5대 핵심가치와 주요 사건들을 짚어보았다. 이어서 문규영 회장과와의 만남을 통해 아

주에 대한 이해를 넓혔고 한층 더 깊은 소통을 통해 아주의 경영 철학을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을 보냈다. 둘째 날에는 삼일회계법인 이승호, 윤상철 교수와 함께 경영 회계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회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 마지막 날에는 MBC <무한도전> 김태호 PD를 초청해 새로운 아이디어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혁신적 사고에 대한 지평을 넓히며 아주인으로 거듭날 준비를 마쳤다.

[아주] 행복한 일상, 2017 아주 캘린더

아주는 매년 행복이란 주제를 가지고 일상에 아름다움을 더하는 예술 작품을 테마로 한 캘린더를 선보여 왔다. 2017년에는 한국 근대미술을 대표하는 서양화가 이인성 화백의 꽃과 정물 12점이 1년을 안내한다. 우리나라 수채화의 본질적 묘미와 절제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이인성 화백의 정물은 복잡한 현대의 일상 속에서 행복한 마음을 선사할 것이다.



독자들과 소통하는 아주가 되겠습니다



「아주좋은날」은 언제나 마음을 두드리는 선물 같습니다. 'gallery'의 넓은 사진을 보면 갤러리에 서 있는 것처럼 아름답고 특별한 느낌이 듭니다. **임상영** 님 · gallery



다산 정약용 선생과 벤저민 프랭클린에 대해 다룬 'insight' 칼럼을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사극을 즐겨 보는데 정약용 선생이 종종 등장합니다. 주인공은 아니지만 이야기의 열쇠를 쥔 인물인 경우가 많더군요. 기사를 읽고나니 정약용 선생에게 모임과 낭만이 있었기에 뛰어난 재능도 빛날 수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약용 선생과 벤저민 프랭클린 두 분이 시대가 낳은 인재로 평가받는 것은 좋은 벗들과 함께 해 온 소중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김동건** 님 · insight



「아주좋은날」의 표지 디자인은 항상 색다른 느낌을 선물해 줍니다. 글 내용 또한 알차게 짜여져 읽는 데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고요. 가을 호에서는 'road trip'에 실린 캐나다 메이플로드가 기억에 남습니다. 아직 가 보지 못했지만 사진이나 글 내용만으로도 현장에 있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어 좋았습니다. **이영철** 님 · road trip



세상 살아가는 모든 일이 「아주좋은날」 매거진에 다 들어 있어서 너무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특히 'aju sharing' 칼럼에서 소개한 아주 해외봉사단의 베트남 봉사활동 이야기를 통해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상 곳곳에서 따뜻함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의 미래가 밝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류기숙** 님 · aju sharing

더 나은 「아주좋은날」을 위해 의견을 보내 주시는 분께는 소정의 상품을 보내 드립니다.

애플트리태일즈 도서
최희경 님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 3로, **임삼영** 님 충남 부여군 부여읍 금성로, **권현숙** 님 대전시 서구 둔산남로, **이영철** 님 서울시 중구 다산로, **류기숙** 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스타벅스 기프트카드(2만 원권)
황지애 님 경기 안산시 상록구 샘골로, **김동건** 님 부산시 서구 해동리로, **김성수** 님 대구시 북구 대학로, **이보경** 님 서울시 동대문구 정릉천동로, **허선숙** 님 경기 의정부시 회룡로

지난 호 IDEA 정답 공개

멀리서 봤을 때는 차마 몰랐던 새로운 모습. 과연 이 사진 속 물체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HINT! 조류의 몸 표면을 덮고 있는 것. 공기층을 만들어 체온을 보호하고 몸의 비중을 가볍게 한다.



정답 : 새의 깃털

새의 깃털을 확대해 찍은 것입니다.

정답을 맞으신 분께 문화상품권을 보내 드립니다.

윤여환 님 경기 구리시 동구릉로

박혜정 님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



균건한 정신을 가지고 조그만 움직임 시작하면 나의 삶과 세상을 더 아름답게 바꿀 수 있다는 희망 「아주좋은날」이 전하는 새해 인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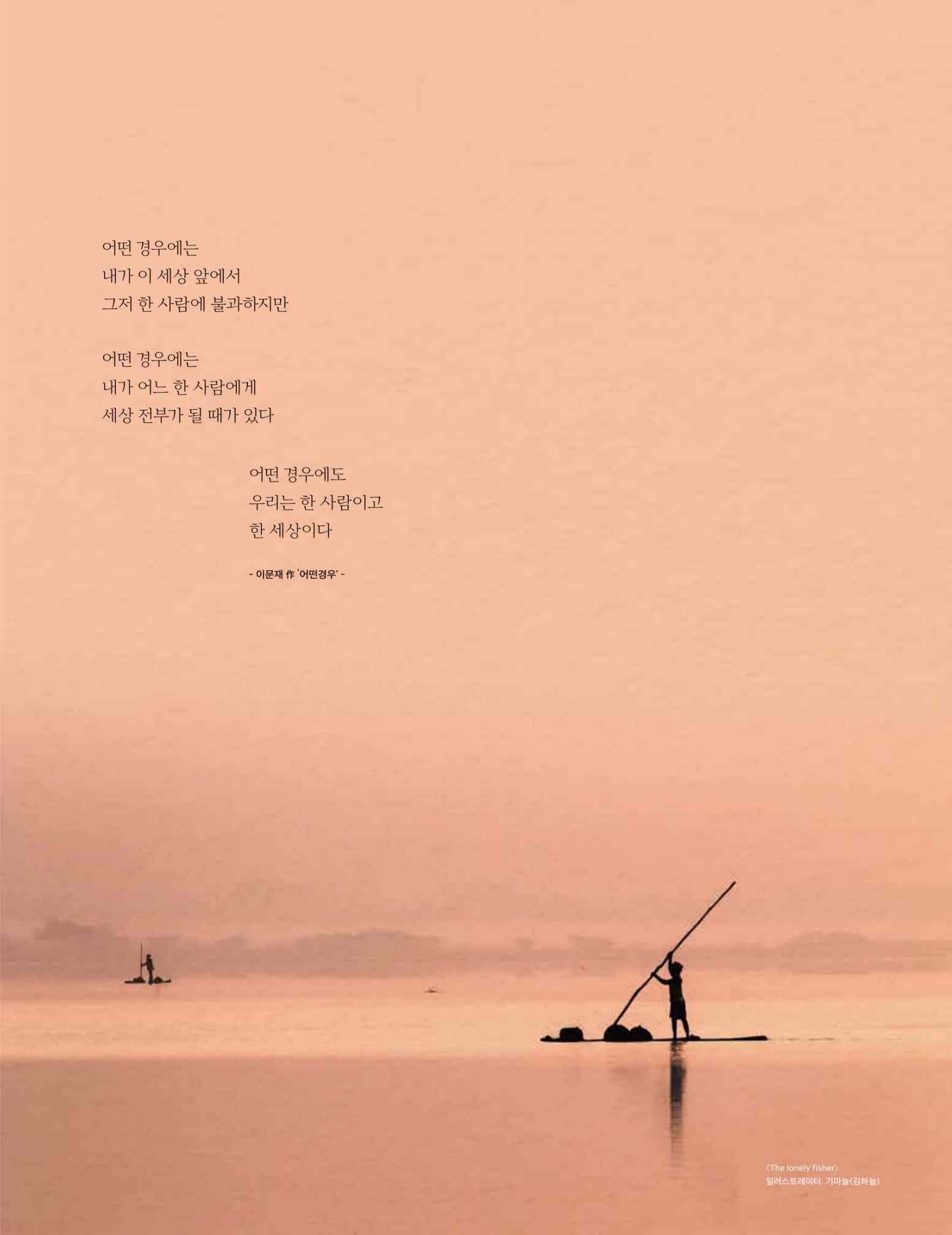
| | | | | | |
|----------|--------|--------|--------|---------|----------|
| 아주산업 | 아주베트남 | 아주캄보디아 | 브이샘 | 아주지오택 | 아주캐피탈 |
| 아주저축은행 | 아주IB투자 | 아주네트웍스 | 아주오토리움 | 아주오토서비스 | 아주호텔앤리조트 |
| 하얏트리젬시제주 | 아주프론티어 | 아주글로벌 | 아주큐엠에스 | 아주복지재단 | |

어떤 경우에는
내가 이 세상 앞에서
그저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내가 어느 한 사람에게
세상 전부가 될 때가 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한 사람이고
한 세상이다

- 이문재 作 '어떤경우' -



<The lonely fisher>
일러스트레이터: 기마늘(김하늘)

독자엽서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전화

이메일



아주 좋은 날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51
아주 커뮤니케이션팀
06626

Coming Together is
a Beginning.

Keeping Together is
Progress.

Working Together is
Success.

함께 모이면 시작되고, 서로 협조하면 성장하며, 함께 일하면 성공한다.

Henry Ford 헨리 포드

